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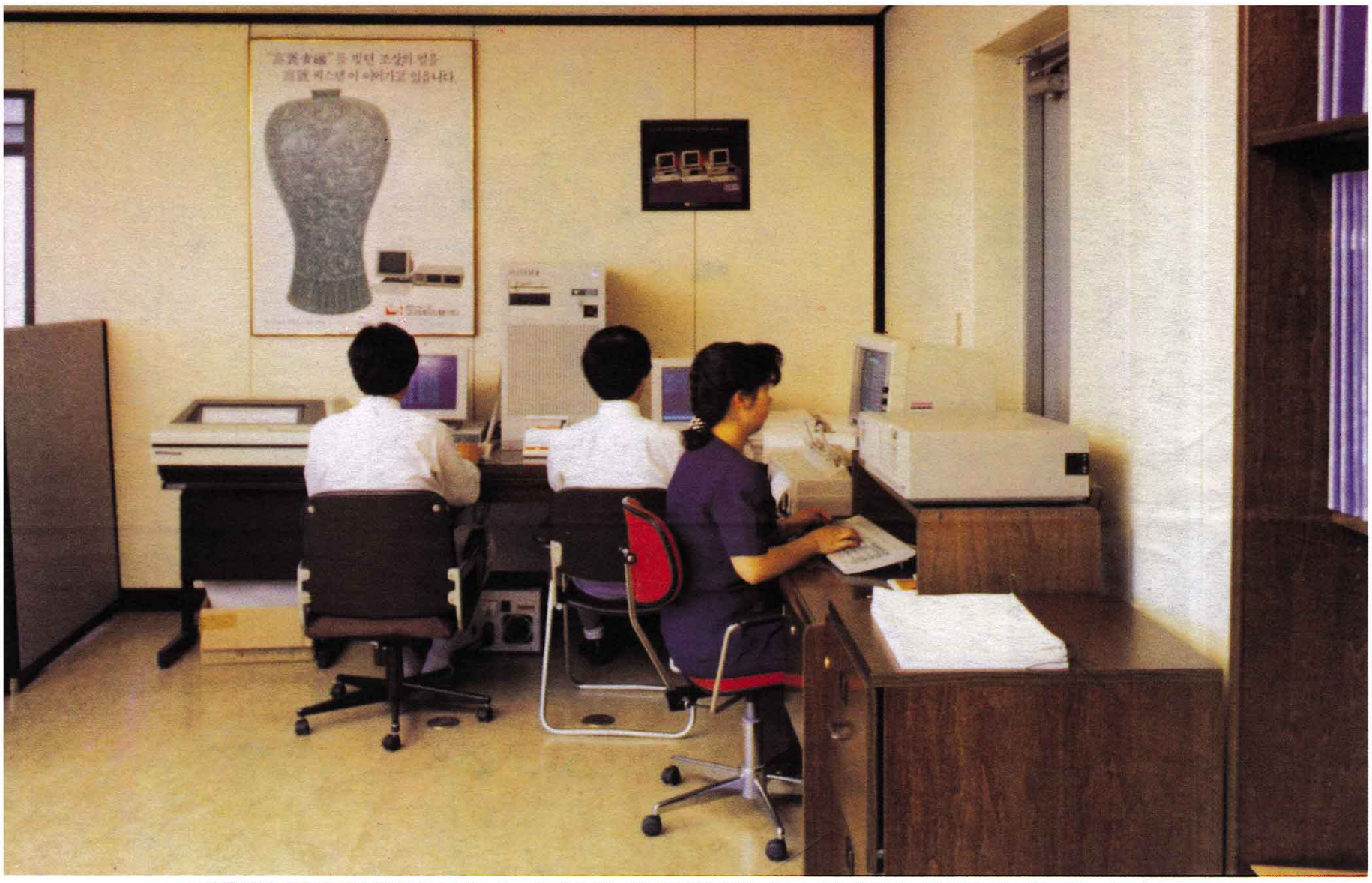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16萬 同門名單 컴퓨터入力 완료



전동문의 電算体系化이룩 : 동창회에서는 전산화체계를 이룩하고 회원명부를 발간키 위해 事務處에 컴퓨터시스템을 설치, 지난 5월 전동문의 명단이 입력 완료되어 주소록 작성에 착수하게 되었다.(사진 : 동창회관에 설치된 컴퓨터시스템)

冠岳春秋

同窓會 業務의 電算化

우리 同窓會는 1988년 7월 1일에 금성마이티AT컴퓨터를 구입하여 會報發送 會費納付現況체크 公文作成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런 정도의 業務量은 그 컴퓨터의 용량 40메가 바이트로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會員名簿 작성을 금년의 重點事業으로 확정함에 따라서 지난 4월 10일 고려시스템-시스템Ⅲ을 구입해서 새로운 需要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會員數가 16萬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그전의 컴퓨터의 용량으로서는 도저히 동창회의 業務量을 감내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구입한 컴퓨터의 용량은 1백40메가 바이트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간 동창회의 業務處理用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컴퓨터는 지금 會員名單入力을 위해서 가동되고 있으며, 겸해서 會報發送 會費納付現況체크및 公文作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금년도의 최대과제인 會員名簿發刊事業의 基礎作業이라고 할수 있는 名單의 入力은 學籍簿를 토대로 해서 지난달로 끝을 맺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동문의 名單을 컴퓨터가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별 住所 職場 職位 電話番號 등이 입력될 관이다. 16萬이나 되는 同門의 이름을 모두 記憶시킨다는 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想像도 할 수 없이 많은 時間과 精力을 요하는 일이었다. 이 엄청난 작업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단시일내에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해볼때 컴퓨터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며 아울러 우리 동창회의 발전을 慶祝하게 된다.

이제 컴퓨터는 모든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있다. 특히 요즘에는 個人用컴퓨터가 발달해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안방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생각해 볼때 우리 동창회가 작년부터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만시지탄이 없지 않다 하겠다.

이번에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하고 同窓會員名單을 입력시킴에 있어서는 모교의 電算硏究所의 도움을 크게 입었다. 모교의 실정을 본다면 電算硏究所가 설립된 이후 다방면에 걸친 업무의 電算化가 촉구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行政의 전면적인 電算體系化가 추진되고 있으며, 圖書館 文獻의 전산화도 금년 5월부터 시작되고 있다.

현재는 도서관 소장 서양서 약 11만 책과 외국학술지 6천여종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헌 이용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 사업은 앞으로 東洋書에 대해서도 擴大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母校의 도서관 이용자는 자기 방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參考資料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文獻資料는 모교의 圖書館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국내의 다른 도서관의 것도 망라하게 된다. 모교의 電算硏究所는 이러한 사업을 국제적 연계하에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世界의 모든 곳에 있는 文獻資料도 이용할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또다시 우리 동창회의 名簿刊行事業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지난 77년에 同窓名簿를 간행한 일이 있다. 그 사업도 1년 이상이 걸려서 이루어졌던 것이나, 아깝게도 電算化를 통한 것이 아니었던 까닭에 그 記錄이 기억되고 있지가 않다. 만일 그때 電算化가 이루어 졌더라면, 또 그 당시의 내용이 컴퓨터화했더라면, 지금의 作業量은 상당히 줄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電算化는 회원의 명단을 永久히 기억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그뿐아니라 各會員의 그때 그때의 상황을 具體的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번에 간행되는 會員名簿의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이번에 計劃된 내용을 보면 77년에 발행된 名簿와 거의 비슷하다. 몇가지의 항목, 예를들어 이름 주소 직장 전화번호등 신변사항을 알아 볼 수 있는 것만을 수록하게 된다. 컴퓨터가 갖는 記憶力을 더욱 활용하면 在學時節의 학업성적 그 후의 經歷 그리고 현재의 身邊사항까지도 入力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會員名簿에 수록되어야 하는 가는 또다른 문제일 것이다.

컴퓨터의 도입으로 우리 동창회의 면모가 쇄신되고 그 쇄신된 모습은 明年에 발간되는 同窓名簿로 첫선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화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名簿가 나온다고 볼수는 없다. 문제는 컴퓨터가 收錄 記憶하는 데이터의 내용에 있는 것이다. 제아무리 훌륭한 記憶장치라 하더라도 기억할 내용이 부실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이번의 컴퓨터입력은 會員의 모든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빠진다든가 잘못 기억된다고 하면 앞으로 영영 그대로 빠져있거나 잘못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회원 모두가 關心을 갖고 名簿作成에 협력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새名簿 編纂원칙 확정

104차 常任理事會 개최

專門大學院 履修者문제 會長團에 위임

본회는 지난 4월27일 제104차 常任理事會를 열고 지난 3월말 名簿編纂委員會 2차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前身일부 및 專門大學院의 연구과정이수자의 회원자격 여부와 명부편찬원칙에 대해 집중 논의를 갖고 명부편찬원칙에는 쉽게 합의했으나, 專門大學院 研究課程 이수자의 회원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난상토론으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이를 會長團 회의에 위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한 후 결정토록 했다.

이날 결의를 본 명부편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은 모교 학적과에서 보관중인 중도탈락자 명부에 따르고, 正會員과 분류 등재한다.
3. 單科大學의 배열순서는 모교에서 시행하는 순에 따르고, 科順은 학적부의 기재순에 따른다.
4. 회원배열순은 年度別, 大學別, 卒業證書 번호순으로 한다.
5. 45년 이전 졸업자 중 創氏改名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동문의 성명은 가능한한 原名을 찾아 넣도록 한다.
6. 文理大·醫大·齒大 예과 수료자중 本科 미진학자는 회칙 제5조에 의하여 회원으로 인정치 않는다.
7. 각 단과대학부설의 中等敎員養成所 출신자는 회원으로 인정치 않는다.
8. 기타 세부사항은 77년도版 동창회 명부를 참고한다.

專門大學院 研究課程 이수자에 대한 會員資格 與否 토의사항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專門大學院 연구과정 이수자의 회원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반대편의 의견은 會則에 의거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한쪽은 과거 77년도판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이미 기득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회칙상의 문제점은 보완을 서 당연히 회원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문제는 현실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들은 이미 77년도판 會員名簿에 올라 있어 당연히 회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被選擧權도 가지게 되어 현재 理事·監事·常任理事등의 중책도 맡아보며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적지않은기여를 해왔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도 이러한 분제로 인해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을 개진하며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날 상반된 견해는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동창회 회칙대로 기재하자는 원칙론』과 『동창회는 어디까지나 친목단체이고 또한 이들에게 이미 旣得權을 주었던만큼 회칙상의 문제점은보완을 해서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모두의 주장에 일리는 있는 것으로 여론화되고 있다.

이날 임시총회를 개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도 역시 두가지 의견으로 엇갈릴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최종결정은 회장단 회의에 위임키로 결론지었다.

◇104차 상임이사회에서 새 명부의 편찬원칙을 확정했다.

6월은 「會費完納의 달」

未納동문의 뜨거운 협조 기대

本會는 이달을 「年會費完納의 달」로 정하여 회비납부동문의 적극적인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사무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5월20일 현재연회비 납부실적은 예산대비 50%를 넘어섰으나 母校支援事業등 동창회의제반 사업이 上半期중에 솟아려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會費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동문여러분들께서 회비를 일찍 내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반비용(회비납부통지서 우송료 및 지로용지 인쇄비등)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면서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未納동문은 이달말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것을 거듭 부탁했다.

農大

農大同窓會(회장 沈鍾燮)에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수원 농학캠퍼스에서 동문 약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沈鍾燮회장을 비롯한 副會長, 監事 전원을 재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한 88년도의 사업, 결산보고에 이어 89년도 사업및 예산과 살록탑 건립등 특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1억2천3백만원을 승인했다.

총회가 끝난 다음에는 개교 70주년 기념식때부터 뜻을 모아왔던 살록탑건립기공식을 선문벌동산(현 학훈단 운동장옆)에서 성대히 갖고 기념연회를 통하여 정다운 대화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나누었다.

新聞大院

新聞大學院同窓會는 4월28일 오후7시 쌍용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8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金太文회장의 후임으로 李根洙동문(大宇投資諮問社長)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외 副會長으로는 朴東海(유임)·柳一相(신임·建國大 신문방송학과 교수)·林采郁(신임·精神文化硏究院 전문위원)·李濟熹(신임·中央經濟新聞 편집부국장)·崔 浩(신임·대현엔터프라이즈 사장) 동문을, 총무는 金貳煥동문(유임·동아생명이사)을 선출했다.

會長인사, 經過및 결산보고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세명의 동문(鄭大秀 정치학·金光玉 정치학·高壽子 철학)에게 기념패를 증정하고 이들의 학위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도 했다.

이어 李根洙회장의 동창회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유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신임인사가 있은 후 이날 총회는 막을 내렸다.

行政大院

行政大學院동창회(회장 俞尙根)는 지난 5월20일 오후5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제29차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88년도의 사업계획및 豫算을 승인했다.

黃斗英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총에는 韓昇洙상공부장관을 비롯한 동문 약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兪尙根회장 인사, 姜信澤원장의 축사에 이어 임원개선에서는 현 임원진을 전원 재선임했다.

이어 常任理事및 理事의 보선은 理事會에 위임키로 했으며, 기타 보고사항에서는 「行政大學 정책논총」 창간호및 89년도판 회원명부의 제작, 장학금 지급내역등에 대해 黃斗英사무국장이 보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2시 30분에는 行政大學院 개원 30주년 기념식이 같은 장소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초대원장을 지낸 申泰煥박사를 비롯역대원장 9명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兪尙根현 동창회장을 비롯한 역대 동창회장에게는 감사패를 각각 증정했다.

기념식에서는 또한 韓昇洙상공부장관과 趙錫俊 전원장의 기념강연이 있기도 했다.

社告

'89同門交響樂團 연주회 개최

■ 日時 : 1989년 8월 29일(火) 오후 8시

■ 場所 : 藝術의 殿堂 콘서트 홀

本會에서는 모교 창립이래 처음으로 오는 8월29일(화요일) 오후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89同門交響樂團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서울大人의 공동체 의식 고취 △單科大學 동문간의 공감대 형성및 유대강화 △동창회 基金造成△아름다운 화음의 창조로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公演文化 발전의 일익을 담당코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연주회에는 國內 3대 교향악단(KBS, 市響, 코리안심포니)에서 주된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동문 1백10여명이 대거 참여합니다.

李南洙동문 (모교음대교수)이 지휘를, 金炅동문(〃)이 악장을 맡을 이번 연주회는 우리 동문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일뿐 아니라 음악계의 큰 일이며, 또한 앞으로는 本會의 연례행사의 하나로 계속 추진하여 동문 화합과 祝祭의 분위기를 창출하는 권위있는 연주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연주될 곡목은 바그너 「방황하는 화란인 서곡」과 협주곡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중 1곡(6월중 오디션 결정), 드보르작 「교향곡 8번」으로서 음악애호가 여러분에게 모처럼 수준높은 交響樂의 진수를 아낌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참관을 기대합니다.

※회원권 예매처 및 예매 개시일자는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지휘 : 李南洙·악장 金 炅 동문
演奏 : 3大교향악단 주축 1백10여명

主催 : 서울大學校同窓會
主管 : 音樂大學同窓會

定總·常綠塔 기공식등

同窓모임 잇따라 열려

서울大學校의 뿌리 ⑫

社會科學大學 〈上〉

政治學科비롯 10個학과로 編成

——韓 基 彦
(49년 師大卒·母校교수)

사회과학대학의 뿌리는 文理科大學에 있다. 문리과대학의 연유에 대해서는 이미 「人文大學」 편에서 언급한 바 있기에 더 부연치 않기로 한다.

오늘날 사회과학대학은 정치학과를 비롯하여 외교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신문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학대학을 말함에 있어서는 산역사적 중인이라 할 李萬甲박사(명예교수)를 꼽아야겠다. 그 까닭은 일찍이 서울대학교 창립과 더불어 얼마후 文理科大學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한 당시 소장학자였으며, 근년에 정년 퇴임시까지 도서관장을 비롯하여 대학원장 등 요직자리에 있으면서 서울대학교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행정면에서 관여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대학교의 「社會科學40年」을 회고, 분석 논평한 글에서 「韓國的이면서 世界的인 것으로」를 강조하였다.

이 논문의 취지는 지난날의 사회과학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전제로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간 노력해온 바 주안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더욱 주력할 것이 무엇일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그는 말하기를 『서울大 사회과학계의 교수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적인 理論의 정립을 외쳐왔다. 그것은 매우 귀중한 생각이다. 한국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편협한 쇼비니즘에서 주장하는 말이 아니다. 확실히 우리는 우리를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고, 우리 社會의 모든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이고 妥當性 높은 이론을 정립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건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이론과 方法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우리의 이론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理論을 외국에 제시하여 비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이론을 더욱 풍부하고 짜임새 있게 세련시켜야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어서 말하기를 『바야흐로 世界史의 무대는 아시아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조명은 번번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던져지고 있다. 이제 우리의 체험은 비단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는 물론 선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도 귀중한 것이 되어 가고 있다. 이때에 우리 사회과학도들은 우리의 쓰라렸던 체험을 냉철하게 살펴서,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연결하고 모순을 안은채 모순을 넘어서 새로운 체험에 도달하는 변증법적인 思考와 數學·논리적인 사고, 직관적인 방법과 실증적인 방법을 통합함으로써 우리의 이론을 확립하고 있다.

◇李相佰교수

◇閔丙台교수

◇李萬甲교수

金彩潤교수가 말했듯이 (會報60호)「백년에 한·두 사람 날만한 巨星」인 것이다. 李相佰교수의 형제 모두가 출중했었거니와, 李박사의 경우는 그의 학문적 업적에 있어서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학생시대에 명성날린 농구선수요 일본 체육계를 주름잡았던 체육지도자요, 건국후의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체육지도자이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어느 모로 보나 이제는 다시금 이만한 학문과 스포츠를 겸비한 학자요 교수를 얻기란 거의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李相佰박사가 남긴 탁월한 학문적 업적은 오늘날 「李相佰著作集」(全3卷, 1978)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중에는 「韓國人의 思考方式의 硏究方法論」이라는 遺稿도 수록되어 있다. 이글은 본래 「韓國思想」 제7집의 청탁으로 집필한 것인데 未完이었던 것을 原文그대로 「韓國社會學」 故 李相佰博士 追念特輯號에 게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후학들이 李박사를 추념하는 심정은 절절한 것이 있고, 또 그의 학덕은 크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金彩潤교수는 故人에 대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모와 함께 묘사하고 있다.

『故 李相佰선생의 爲人과 業績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야기할 바가 아니다. 너무나도 크고, 높고, 깊고, 넓기 때문이다. 가히 없는 度量, 가위 無所不能에 가까운 超人的 多才多能과 다방면에 걸친 뚜렷한 발자취. 따라서 선생과 삼당히 오랜 기간을 가까이 한 사람들조차도 선생의 特定一面만을 겨우 알뿐,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기껏 장님 코끼리 어루만지는 격이라고나 할까』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그의 약력을 이렇게 소개하고있다. 즉, 『선생의 관심, 활동, 영역이 넓고 다양한데서 異彩를 띈다. 학자, 교수, 문화박사로부터 대한체육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동양의 古典으로부터 서양의 최신 학설, 考古美術·國史로부터 西洋語文·漢文으로부터 사회학, 『…』

가위 무소불능에 가까운 초인적 다재다능과 다방면에 걸친 뚜렷한 발자취라 하겠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선생을 가리켜 稀代의 巨木이니 또는 한국에서 한백년에 한둘 날까 말까한 巨星이라고들 말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가 당대의 정상급 학자의 한분이었다는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여지고있는데, 『권위있는 학자, 대학교수로서 선생이 이룩한 다방면에 걸친 수다한 著書와 논문은 무엇보다도 그 質과 수준에 있어서 頂上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李朝建國의 硏究」, 「朝鮮文化史論攷」 등의 저서는 사회과학적인 視角에서 國史를 다룬 독창적인 論著로서 한국 社會史硏究의 현대적 古典으로 통하고 있다』는 말 그대로라고 하겠다.

또 그의 풍모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여지고있다.

『六尺長身에 수려한 용모, 고매한 人品, 어디에서나 座中을 매료시키는 무궁무진한 高談俊話, 서화골동등 古美術에 대한 깊은 조예와 높은 鑑識眼』

2차 대전전에 이미 6대양 5대주를 누빈 수다한 해외여행, 국내외에 걸친 넓은 交遊範圍.

이러한 李相佰교수였거니와 『한편 선생은 休講이 잦기로도 유명하였다. 빈번한 海外出張, 末年에 가서는 잦은 入院등이 그 主因이었다. 그러나 大家로서의 또는 名敎授로서 선생의 진짜 면모는 강의실보다도 연구실에서 생생히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고보니 정년까지 마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李相佰교수의 신당동 댁 생각이 난다. 나도 한때 그 근처에서 살고있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대학의 오늘을 생각할때 잊을 수 없는 분으로는 閔丙台교수를 꼽아야 할 것이다.

정치학과 교수중 20년이상 근속한 분이요 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분은 6년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은바 있는 제자인 裵成東박사는 閔丙台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바 있다. 즉,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 「不名講義」였지만, 언제나 수강생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본관의 7, 8대 강의실에서 있었다. (會報32호)』는 것이다.

그의 풍모에 관해서는, 『유별나게 자신을 드러낼려고 하지 않았던 분이지만 약간 벗겨진 머리를 아무렇게나 벗으시고 약간 어슬렁거리는듯 보이는 걸음걸이로 마로니에의 큰 잎을 낙엽져 있는 캠퍼스를 이리 다니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히 떠오른다는 것이다.

閔교수에 대한 글로는 華甲記念論叢에 실린 心岳 李崇寧박사의 原文이 있는데, 『公三 閔박사는 白皙長身의 풍모를 지닌 분으로 평시에 풍기는 체취가 이미 凡俗을 초탈한 哲人의 느낌을 엿보이게 한다. 주야로 汗牛充棟의 문헌을 연찬하여 많은 업적을 쌓아 학자로서 斯界의 紙價를 높인 것을 여기 거론할 것도 없지만, 해방후 거친 世態에서 의연한 몸가짐으로 衆人의 欽仰을 독차지했고 學世皆濁의 사회풍조를 보고 나라와 민족의 추향을 근심하여 붓을 들어 志士이 濟世의 경륜을 펴 자주기도 하다. 어찌 閔박사의 흉중에 간직한 심오한 사상을 그누가 감히 짐작할 수 있으랴』라고 갈파했던 것이다.

裵박사는 위의 인용문이상 적절하게 표현한 말은 없다고 하였거니와, 閔丙台교수의 碑文은 그의 수제자 金榮國박사(부총장)가 짓고 故人의 친우 金正祿교수가 써서 錦江 기슭 선영에 세워져 그의 학덕이 길이 이어지고 있다.

社會현상 理論정립위해 先輩교수들 不斷히 노력

無所不能, 多才多能의 人的모임 學風으로 이어져

世界史에서 照明받는 50年의 터전, 文理大가 뿌리

새 「名簿」 발간 案內 말씀

本會에서는 創立20周年 紀念事業의 一環으로 새 「會員名簿」를 發刊합니다. 16萬 全會員의 電算化 作業이 完了됨에 따라 그동안 交信이 끊겼던 同門들의 所在를 把握, 알찬 名簿를 刊行코자 하오니 이웃 同門이나 海外에 나가계신 同門들도 아래 양식에 따라 住所보내기에 積極 同參해 주시기 바랍니다.

姓 名	(漢字)	(한글)
出身大學	大學 科 年 卒業	
出身大學院	大學院 年 修了	
職 場 名		
職場住所	(電話)	
自宅住所	(電話)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서울大學校同窓會 會 長 崔主鎬
名簿編纂委員會 委員長 李聖秀

起亞産業(株)

自動車 생산으로 창업의 뜻을 세워 지난 45년간 국가기간산업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앞장서 이끌어 온 起亞産業。

기아산업은 최고 수준의 自動車메이커로서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輸出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하나로 착실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1944년 同社 창업이후 고급 두뇌들의 축적된 힘으로 多邊化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적극도전함으로써 가능하였다。

특히 同社내의 요직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在기아산업 서울대동문회」 회원들의 활약상이 뛰어나 韓國機輸車·三輪車·四輪車를 단계적으로 생산하며 착실히 성장해 나갔다。

지난 81년에는 정부의 自動車工業合理化조치에 따라 乘用車생산을 중단하고 중소형貨物自動車및 미니버스의 생산을 전담해오다 87년 車種別 專門生産體制가 自由競爭體制로 전환됨에 따라 변신을 시도, 6년만에 乘用車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함으로써 명실공히 綜合自動車메이커로서 면모를 一新하였다。

부문별 생산현황을 보면 먼저 乘用車부문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다양한 車種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중 소형승용차 프라이드는 同社의 대표적 車種으로 지난해 美國수출 10만대를 돌파한 이래 캐나다에도 진출, 세계자동차시장에서 기아의 이름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

◇金善弘사장

◇金海鎭지부장

◇黃舜夏총무

이처럼 同社가 국내외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데는 신용·노력·꿈을 가진 起亞人들의 창의력이 바탕이 되었다。

특히 同社 技術의 寶庫라 할 수 있는 中央技術硏究所에 90여명의 동문들이 독보적인 위치에서 큰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本社에는 金善弘사장(본회부회장)이하 40여명의 동문들이 經營의 합리화를 꾀하며 同社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在기아산업 서울大동문회」의 임원은 회장 1人, 본사와 연구소에 총무 1人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同會는 매년 5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송년회를 겸해 회계결산보고와 함께 새 임원선출을 한다。

이밖에 경조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수시로 모여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本社의 총무를 맡고 있는 黃舜夏동문은 「많은 선배님들의 배려로 동문회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소개한후 「올해에는 본사와 연구소간의 連繫를 좀더 긴밀히 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것이며 회원들의 동정을 파악하여 두루 알리고자 간단한 會誌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創社이래로 자동차생산 누계 1백만대를 돌파, 「世界의 起亞」로 향하는 기아산업, 新技術, 新情報 습득에 힘써 自動車 연구개발에 독자적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현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會長 : 金海鎭(연구소 승용개발부 차장)
▲本社總務 : 黃舜夏(수출관리실 대리)
▲硏究所總務 : 이구호(연구소실험2팀)

期·科·支部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모임이 있으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702－2233～5

한국굴지의 自動車메이커로 發展

1백30여同門 模範支部로 表彰받아

支部探訪

(株)三養社

주식회사 三養社는 1924년 日帝治下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피폐된 農村을 살리고 産業을 일으키려는 産業報國의 정신으로 창업되었다。

초기에는 서남해안의 간척및 개간사업을 통한 농장의 개설로 생활의 터전을 넓히는 한편 滿州에 방직공장을 세우는등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이후 解放과 6·25동란등 격동의 시대를 헤쳐오면서 民族企業으로 자리를 굳혀온 同社는 1956년 蔚山에 精製糖공장을 건설, 삼양설탕의 생산을 시작한 이래 폴리에스텔섬유·배합사료·수산·축산·아온교환수지·건방·화학·기계등 10여 부문에 걸치는 複合기업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金辨洙부사장

◇金相廈회장

특히 폴리에스텔섬유는 세계 9위의 생산규모를 자랑하며 제조기술에 있어서도 최첨단 中空複合섬유 생산기술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는등 그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또한 三養綜合硏究所에서는 정밀화학분야인 이온교환수지 생산을 완전 국산화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同社가 우리나라에서 年輪이 가장 오랜 기업중의 하나로 내실을 기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해온데에는 三養訓, 즉 「安分以養福, 寬胃以養氣, 省費以養財」라는 경영이념에서 비롯된다。

이는 중국 宋代의 문호인 蘇東坡가 생활의 지표로 삼았던 修身訓으로 이를 直譯하면 「분수를 지켜 福을 기르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氣를 기르고, 비용을 절약하여 財를 기른다」라는 뜻으로 庸思想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행복한 생활의 지향(養福), 건전한 기업의 육성(養氣), 풍요한 사회의 건설(養財)이라는 기치 아래 人間主義的 경영을 志向한다는 것이다。

創業65년, 民族企業으로 꾸준히 成長

親睦과 단합으로 會社 발전에 寄與

이때문에 同社는 우리나라 기업가운데 수성이 가장 강한 회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量的팽창보다는 質的내실을 중시하는경영진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創業 65년이라는 오랜 歷史를 가진 同社는 그동안 다져온 經營力을 기반으로 기업영방침과 같이 「在三養社 서울대동문회」의 활동 역시 소리없이 내실을 다지며 상호간의 親睦을 돈독히 하고 있다。

아직은 뚜렷한 모임체가 결성되지 않아활동내용이 미약하지만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同門意識으로 돌돌 뭉친 30여명의 회원들은 어나면서 모임체를 결성하려는 의지가 커가고 있다는 「동창회활동을 통해 親睦을 도모함은 물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단합된 힘을 펼쳐 보이겠다」고 한다。

다가오는 90년대를맞아 「제2의 創業」이라는 기치를 내건 同社는 오랫동안의 업종전문화에서 탈피하여 석유화학·정밀화학분야등 첨단 新事業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업종다각화를 꾀해 세계적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끝으로 同支部 회원들의 面面을 살펴보면, 金相廈(49년 文理大卒·代表理事 會長·대한상공회의소회장·本會부회장), 趙碩(50년·商大卒·선일포도당㈜ 代表理事 社長), 金辨洙(57년 工大卒·副社長), 金相應(65년 文理大卒·代表理事 社長) 동문등 30여명이 三養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있다。

他同門會 못지않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회원들의 경조사시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相扶相助하고 있다。

同支部의 總務를 맡고 있는 宋厚永(총무 인사과)동문은 「점차 社內에 동문수가 늘

자랑스런 서울大가족

醫藥人 3代…權景坤동문 一家

夫婦藥師로 15년간 「현암」을 運營

兄弟 子女함께 8명이 母校출신

「三省家誡」家訓集 엮어낸 전통儒家의 모범가정

藥權신장의 旗手, 健全사회인 육성에 心血쏟아

이번호 「자랑스런 서울大 家族」엔 夫婦가 동문이며, 슬하 4男妹 모두를 모교에 보내 명실공히 온 가족이 동문으로서 그 英才性을 발휘한 權景坤동문(60년 藥大卒·현암약국) 一家를 소개키로 한다.

(權동문은 이 나의 취재요청을 받고 『서울大 출신의 기라성같은 선배와 동문 一家가 많면서도 굳이 소개를 하려면 「자랑스런」이란 수식어를 빼고 그냥 「서울大 家族」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으나, 본래의 제목을 그대로 게재했음을 밝혀두며 이점 權동문가족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먼저 家門의 내력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先親의 고향은 경남 의창군이었습니다. 漢醫師로서 고향에서 한의원을 하시다 6·25동란이 일어나자 釜山으로 옮겨 先親의 雅號를 딴 「三省漢醫院」을 오래도록 운영하셨지요. 先親께서는 또한 漢學에도 조예가 깊으셔서 생전에 손수 집필하신 「三省家誡」라는 책자를 남기셨는데 이 책은 저희 집안의 가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立身·修養·處世·勉學등 생활전반에 걸친 가르침과 함께 漢醫師로서 硏究하신 각종 生活醫學과 妊娠注意事項에 이르기까지 언급하시어 先親의 후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엿볼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집에서는 「三省家誡」속에 담긴 뜻을 받들어 자녀교육이나 생활의 지침서로 삼고 있습니다.』

—權동문께서는 藥界에 발을 들여 놓으신 후 많은 일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 지나온 발자취를 回顧해 주시지요.

『글쎄요. 특별히 해놓은 일이 없어 뭐라 말씀드리기 쑥스럽군요. 저는 大學을 졸업하고 나서 製藥會社에서 공장장과 영업상무 등을 거치면서 藥界의 實務를 익혔습니다. 그러다 74년부터 지금의 「현암약국」을 개설해 內子와 함께 운영해오고있습니다. 그간 의약분업과 의료보장제도에서 약사의 역할정립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해당 行政機關과 大韓藥師會 등에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좋은 결실을 맺어 왔는지는 의문인니다. 이 모든 일이 주위의 先輩·동료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지난해에는 藥業新聞社가 제정한 제27회 「藥의賞」을 수상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수상하시게된 계기를 설명해주시지요.

『수상공적이 의약협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목포시 의약분업 시범사업의 실시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라고합니다만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았을 뿐입니다.』

(금구 수상한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며 겸손해하는 權동문의 공적을 좀더 자세히 알고자 당시 藥業新聞에 실린 기사내용을 引用해 보면 『權동문은 이미 藥界에서 팔방미인으로 다재다능함을 인정받고 있어 컴퓨터적인 정확한 판단력 아래 주도면밀하게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藥의 賞」을 받은후 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해 「藥의 賞」을 받은후 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함께 개국약사들의 앞으로 나아갈 지표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슬하의 2남2녀 모두를 모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방침이라도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三省家誡」중 이런 글귀가 있읍니다. 「臨淵羨魚는 不如退而結網어니라」(못에 다달아 고기를 욕심내기만 하는 것은 빨리 집에 가서 그물을 뜨기만같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처럼 저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되던지 먼저 준비를 갖추어 놓으라고 하지요. 그다음으로는 어릴때부터 가장 중심된 일을 먼저 처리한 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차츰 영역을 넓혀가도록 지도해왔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적정한 선에서 할수 있는 일만 선택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열심히 노력해주어서 모두 서울대에진학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夫婦間·父母와 자식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기반으로 화목한 가정·발전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지요.』

—훌륭한 자녀들을두셨는데 자녀들에 대한 바램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이 서로 돕기를 잘하고 형제애가 두터워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바램이있다면 앞으로 각기 실력을 갈고 닦아 유능하고 건전한 社會人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 長成했으므로 먼저 큰아이서부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배우자와 만나 새로운터전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흔히 서울대 출신 女息을 가진 이들이 사윗감 고르기가 어렵다고들해 걱정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똑똑하고 여성답지 못하다는 고정선입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요. 그럴려면 훌륭한 선후배들과 많은 동문가족들이 노력하여 조금씩이라도 수정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과년한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 다 그렇듯 權동문 夫婦도 子女의 결혼문제에 대해 무척 신경을 쓰는듯했다.

끝으로 權景坤동문 一家의 동문현황을 權동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兄 權景檀동문 : 52년 法大 行政學科를 졸업. 56년 모교 大學院 法學科를 수료하고 建國大·外國語大 교수를 역임. 5·16후 國家再建最高會議 文社위원회자문위원을 거쳐 國會사무차장 사무총장서리, 大韓體育會 사무총장을 역임. 현재 서울證券 고문으로 재직중.

▲본인 權景坤동문 : 60년 藥大를 졸업하고 태광제약(株)의 常務를 거쳐 대한약사회 상임이사, 모교 약학대학동창회 부회장, 보건사회부 의약협업추진위원·의료보험 재심사위원·의료보험 심의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보건사회부 전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진료비공동심사위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맡고있다.

藥業新聞社 제12회 약국레이아우트 콘테스트 금상수상, 제27회 「藥의賞」수상.

▲부인 金順子동문 : 61년 藥大를 졸업하고 현암藥局 경영.

▲弟 權景迹동문 : 67년 法大를 졸업하고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산하 창원기능대학에 재직중.

▲同嫌 姜然軾동문 : 62년 師大를 졸업하고 美앨리조나주립大學에서 박사학위 취득. 現 조지메이슨대학에 出講.

▲長女 權京希동문 : 87년 藥大를 졸업, 同大學院에서 碩士學位를 취득하고 渡美, 美미네소타주립대 약학대학에서 사회약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長男 權宅珍동문 : 89년 工大를 졸업하고 同大學院 컴퓨터공학과에 재학중.

▲次女 權哉希양 : 醫大 本科 1년에 재학중.

▲次男 權宅均군 : 醫豫科 2년에 재학중.

安定·改革의 大轉機

——새마음 새물결 새條理

內外의 눈

초대석 ①

尹 宗 鉉

〈46년 商大卒·前한국일보論說顧問·本報編輯委員〉

「89년의 展望」난을 마감하고 이번號부터 「內外의 눈」을 特設, 國內外의 핫 이슈의 問題를 다루게 된다. 本報 편집위원들 비롯, 권위있는 各界 동문들의 執筆欄이 될 것이다.

危機說이 짙던 5월이 세월의 뒤안길로 넘어갔다. 위기의식·체제위기설 등이 그처럼 심했던 月曆은 일찍이 그리 흔치 않았다. 「6·29」이래 봇물처럼 터졌던 變革의 욕구와 억압으로 일컬어지는 지난날의 정치·사회적 운영방식이 낳은 부작용의 한 과도기·결산기현상이라고 일단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그렇게만 보기엔 상황은 너무 심각한 局面들이 허다하였다. 事態는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파괴적이며 장기화하는 일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총체적인 破局을 빚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우려, 하루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危局—이런 重症이 아직도 싹 가시지 않은게 오늘의 실상이다.

大學의 총장실은 걸핏하면 운동권학생에게 점령당했다. 교수와 학생간에 몸싸움이 잦은가 하면 교수가 학생들의 욕설대상이 되고 멱살을 잡히며 교문밖으로 쫓겨나기 일쑤였다. 캠퍼스는 운동권학생 일단의 공동위장이거나 半兵營化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행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납치된 義警을 구출하려다 신나속에 던진 화염병방화로 경찰관 7명이 숨진 釜山 동의대 참사는 그같은 극렬·폭력시위의 최악의 한 사례였다.

「沈默의 多衆」은 그런 화염병시위를 대부분 싫어한다. 한데도 작년 한해에만 그 시위회수는 1천7백여차례, 병수는 35만8천여개였다는 것이다. 올해엔 좀더 과격해져 4월20일현재까지만도 6백34회·29만9천여개가 이미 날라들었다는 집계이다. 숫적 증가와 함께 그 사용계층도 확산되어 종전에는 거의 대학가에서만 볼 수 있던 화염병시위가 노사분규현장에까지 등장하였다. 서울지하철과업때 일부 농성근로자들이 화염병을 사용한 것은 그 한 실례에 속한다.

또 근자엔 사용방법마저 매우 조직화 하여 학생들끼리 서로 組를 짜서 집단적이고 파상적인 투척을 오늘의 파업자체보다도 다음의 후유증이 더 두렵기 마련이다. 얼떠은 기업들은 정상가동의 회복이 그리 쉽지 않다. 연계성이 짙은 産業界에 연쇄휴업사태가 빚어지고 수출타격과 함께 외화획득에 결정적 타격이 따른다. 올해 만해도 4월24일현재 이미 제조업 부문의 생산차질액 2조3천여억원, 수출부문 8억8천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그에따라 생산업체 전설업체 모두에 마비증상이 미치며 정부의 金庫나 복지자금이 줄어들 것도 뻔한 일이다. 일반의 소비능력 또한 아무래도 감퇴되며 그로 인한 유통부진·산업불황과 함께, 심해지면 스태그플레션이 일기도 쉽다. 그래서 실업자의 격증·사회적 불안이 만연되면서 「폭력급진혁명」이라는 수습하기 힘든 위국·파국이라도 맞게 되면 체제의 붕괴나 독재권력의 등장같은 反民主的 사태가 출현하는 불행을 결과적으로 당하게 될지 모른다.

아직은 낙관적인 견해들이 강하기는 하나 원貨절상같은 다른 요인과 더불어 노사분규로 인한 「減速成長의 그늘」은 벌써 우리 경제의 전면으로 다가서고 말았다. 지난 25일 발표된 韓銀의 분석을 빌리면 올해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동기보다 무려 9·5포인트나 낮은 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84년 4·4분기 이래 최저수준인 5·7%의 저조성장마저 우리 산업의 기반인 제조업부문에서가 아니라 주로 기업의 財테크붐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의 투기바람을 타고 금융·보험같은 서비스부문에서 이루어진 不健全性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수출 또한 금액기준으론 8·1%가 늘어났지만 물량면에선 4·3%가 줄어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현상을 빚은 반면, 민간소비성향의 급증과 물가앙등현상은 역으로 매우 두드러져 成長軌道에 이상이 생겼음을 암시해 주고있다.

◇ ◇ ◇

성장세의 전망이 이처럼 불투명해진 가운데, 그리고 격렬시위때 전해지는 人命손상소식을 대할때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체나 퇴보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대로 주저앉아버릴 것인지 좋잖기 힘들다는 푸념·풍설마저 근래는 제법 잦아졌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작년말까지만 해도 우리는 開發도상국에서 급속하게 先進國의 문턱으로 바짝 다가서는 기적같은 발자욱을 남겼다. 3년간이나 연속 12%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世界新」인 것이었다. 올림픽은 日本 다음으로 아시아에선 두번째 최했고 그 대회에서 따낸 金메달 수는 참가국 1백60개국중 4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선 1등이었다. 우리 國民들의 친절하고 정답고 자신있는 모습은 온 地球村에서 칭찬을 사고 남았다. 머지 않아 세계의 中心圈으로 등장, 국제사회를 주름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진취성이 솟구치던 우리들의 사회며 나라며 位相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사이 데모의 1등국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이며 폭력적인 대립을 내포한 不法性과 무질서 파괴의 연속선상에서 종체로 妥協點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으로 시종하였다. 그 현장마다 정치색깔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이었다. 政治不毛의 옛시대에 대한 반발, 옛 집권세에 대한 규탄이 5공비리청산으로 응결되고 구질서와 기존체제의 거부경향 또한 세차게 나타났다.

그 모든 대목에는 「民主化」라는 思潮의 흐름과 명분의 뒷받침이 주창되었다. 정치와는 무관한 사건이나 爭議에도 정치논쟁은 비화되고 법과 질서와 理性이 유린되는 파괴·난동도 바로 민주화라는 그 레테르를 붙여서 합리화하기 일쑤였다. 기존의 원리 원칙을 말하면 자칫 보수·반동과로 매도되고 이제까지의 가치체계나 규범은 모두가 「파괴의 대상인양 멸시하는 경향마저 운동권과 在野측에서 드러내고 있다. 理念문제, 統一문제, 對美관계에선 특히 그런 偏向이 두드러져 있다.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사회규범속에서 서서히 고개를 든 어느 덧 이념의 성향은 左傾·左翼의 반전현상을 꺼리낌없이 돌출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북한공산집단의 40년간 독재 허물은 덮어두고 우리 체제만을 탓하는게 지난날 요즘의 운동권측 주장이다.

유엔기관에서마저 「자유와 人權의 측면에서 세계 최악의 나라」라고 지적한 북한의 독재지상을 거론찬양하는가 하면 統一이란미명하에 「존경하는」 그 독재자를 출선 찾아들어 자진협력을 엎숙하게 맹약한 「巨物북사님」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좌경교육을 국민학교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나타났고 統一至善을 내세우는 在野의 主思派들은 駐韓美軍을 「분단의 원흉」 모든 문제의 「장애물」로 몰아치며 그 撤軍과 反美를 최고최대의 투쟁목표로 삼고도 있다.

바꿔 말하면 이제 그들과 그 단체들은 우리 憲法에 명문화한 「自由民主的 統一」을 대수로운 가치기준으로 삼는다고는 볼 수 가 없다. 그보다도 북한측의 「인민민주주의통일」주장과 흡사한 이른바 「民衆統一 노선」을 앞세우면서 폭력명으로 한국의 현정권을 타도하고 聯共統一·赤化統一의 길이라도 텄으면 하는 국면전개를 시도하는 듯 하다. 그들 사이에서 튀쳐나오는 「6·25北侵論」이나 거듭되는 「金日成주체사상」 찬양, 不法的인 對北韓접촉 및 회담기도등은 모두 그런 맥락에서 연유되는 동향이라 하겠다.

제도권 밖에서 더욱 불그러지는 그 맥락속에선 이미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 부정 또는 왜곡되고 있음을 말한다. 民主韓國을 위하여 이제껏 진력하고 희생했던 한국민의 체통은 모조리 유린당하다시피 되는 셈이다. 法과 秩序, 理性과 良識이 지배하는 민주사회의 본질이나 안정적 기반이 심각한 挑戰을 받고 있음을 가리키는 실상인 것이다.

民主韓國 40여년사를 돌이켜 생각하면 混亂과 彷徨도 참으로 4·19직후의 민주당정권시절 보다도 훨씬 우심한 難境에 부닥뜨렸다 하여 과언은 아닐듯 하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世評에도 비양거림이 섞이는 한 면까지 생겼다. 公權力에는 「無力」이란 대명사가 붙어다닌다. 제도권의 영향력은 「종발상태」라고들 한다. 기둥처럼 사회를 지탱해야 할 지도층이 권위를 「상실」한 때문이라고도 한다. 도덕성과 사회정의의 그 균형의 원리不在를 탓하는 측도 있고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보로 풀이하는 소리도 들린다. 5공비리척결의 지연, 無定見한 정책의 濫發, 북한측의 악랄한 대남교란선동을 손꼽는 견해도 한 적지는 않다.

하나 좀더 큰 시각으로 현실적인 근원을 놓속해서 생각할 때, 그것은 與小野大·4당정치체제가 내포한 정치권의 무력과 공임없는 分裂症 때문임을 먼저 꼽아 무관할 듯 하다. 議會民主정치제의 본령이나 올바른 지표를 잡고 그 해결점을 찾자면 오늘의 상황 사태는 정부 못지 않게 분명히 議會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이를 수용,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다. 좌경폭력문제, 학원사태, 노사분규와 경제위기외에도 남북문제, 정치풍토쇄신문제등 모두가 超黨的노력이 요구되는 難局對應과제들이기 때문이다.

한데 적어도 어제까지는 이 大局앞에 의연해야 할 정치권의 행동규범이 小我와 小利, 黨利黨略에 너무 집착하는 실태가 자주 눈에 띠었다. 제각기 제앞만 챙기는 습성,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利己, 共同體당돌제 한 마음 한 뜻으로 共同대처에 합심할줄 모르는 만성적인 4分5裂相—그런 자세의 고집없이 조심스런 兩是論 따위에나 매달리는한, 그들의 危機管理능력을 인정하고 믿어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 政治不在를 개탄하는한 숨 이외에 국민으로부터 어떤 존경이나 共鳴도 사기 힘들 것이다.

◇ ◇ ◇

5월위기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여는 6월의 새 合意·새 合心을 구축할줄 알아야 하겠다. 共同대처로 難局을 속히 청산하고 安定과 希望의 새轉機 새航道를 잡는 합의며 합심인 것이다. 우리에게 이상의 後退란 있어 안된다. 民主化를 빙자한 混迷와 彷徨은 속히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나라의 맥락이 뒤틀리거나 先進圈진입의 좌표를 상실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한다. 政治문제의 핵심점(5共청산과 光州사태 처리)은 슬기롭게 풀어 안팎으로 잡음이가 되는 일들이나 北方으로 전진하려는 우리의 신호등과 세계로 나부끼던 雄飛의 깃발이 퇴색하는 일 또한 더는 있어 안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6월의 그런 길은 점차 전망이 뚜르러지고 있다. 새아침 새언덕으로 햇살은 다가서고 正常을 찾으려는 북원력은 그 빛을 따라 나날이 확산되는 기세이다. 한 때의 위기상황이 아무리 심각했어도 말없는 多衆들은 끄덕하질 않았다. 「그렇게 나갈수는 없다」는 良心의 반발이 일부의 暴力亂動을 혼계했고 무거운 압묵의 비평을 적절하게 가하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그런 구심점을 짚약하면서 國會는 드디어 폭력의 극치인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法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5·27). 동시에 그 맛보기로 「최루탄 사용을 규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도 통과시키고 뒤이어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까지 채택하였다. 제도권 정치에 대한 위협을 공감한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는 않으나 어쨌든 제146회 임시국회의 한업적임에 틀림없다. 그밖에도 모처럼 危機정국 해소와對話·타협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重鎭회의의 몇가지 合意도출성과나 그 마결점을 타결지으려는 領袖회담의 연속개최결정은 모두 평점을 보탤만한 진전일시분명하다.

폭력시위의 난동상은 이미 法案통과직전부터 진정되는 듯 하더니 그 기미가 뚜렷해졌다. 東義大사건을 계기로 全大協등온동권학생단체 스스로가 화염병不使用을 선언했고 (일부 반대현상 있으나) 그뒤 5·18을 전후한 光州의대집회와 시위에서도 대체로 평화적인 양상이 확연했었다. 경찰의 대응 역시 그에 따라 온전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래동안 몸싸움·화염병 대 최루탄전을 벌였던 일부 대학생과 義警들이 최근에 와서 和解의 체육측 결의로 구질서와 기존체제의 거부경향 또한 세차게 나타났다.

유린당하다시피 되는 이 모든 現象이 이제는 제줄기를 찾으려는 새로운 기지개며 흐름의 大勢라고 본다면 어떠할까. 大轉換의 무드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다. 화염병과 최루탄의 卒業을 바라고 초법적인 행동거지를 마다하며 조용한 改革전진을 바라는 심정의 歸結이자 事勢의 자연스런 條理일 것이다.

이제 그 機會를 놓치지는 말아야 하겠다. 希望을 살려야할 일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刷新할건 쇄신하고 지킬것은 지키면서 평화롭고 안정되고 順理와 秩序속에 진행되는 참된 민주화의 새 平原·새 꽃동산을 가꾸어야 하겠다.

화염병 左傾理念 싫어하는 民心받들어

극렬爭議·經濟침체 우선 克服해야

조용한 改革意志 民主開花의 正道

5월 危機넘긴 6월의 展望 푸르다

——多衆의 良心으로 正常 되찾아야——

難局, 공동대처에 超黨的 合心긴요

名譽敎授칼럼

驚異로운 八象醫學

人間은 건강하게 長壽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天理라고 하겠다. 아니 健康하지는 못하더라도 즉 病에 걸려 있는 情이 더욱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重病에 걸려 죽게 된 환자가 醫師에게 『될수 있는대로 좋은 藥을 써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애원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설날에 99살된 할아버지한테 歲拜를 가서 『할아버지 1백살까지 오래오래 健康하게 사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 『옛끼, 이 놈들아 나보고 겨우 1년만 더 살라는 말이냐』하고 화를 내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李 明 馥
〈39년 醫大卒〉

인간의 天壽는 20~1백30세라고 長壽者들은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健康에 쾌적한 환경속에서 健康에 좋은 食生活을 하며 자연의 섭리에 맞는 생활을 하면 1백20세를 살수 있다는 것이다. 地球上에 4개소의 長壽鄕(地域)이 있다. 이 지방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1백세이상 사는 사람이 특별히 많고 1백30세이상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이점으로 보면 인간의 天壽는 1백20~1백30세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생활에 주의하면 1백세이상 살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現代文明國에 있어서 외견상으로는 모든 生活條件이 개선되고 향상되어 가고 있어 文明國사람들은 모두가 건강하게 長壽하리라고 보는데 사실은 文明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健康狀態는 점점 惡化되어 가고 발달된 의학으로도 治療가 안되는 질병이 많다.

식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病이 하가지도 없는 健康한 사람은 거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나는 젊어서부터 慢性消化不良으로 病弱하여 洋藥, 漢藥의 여러가지 藥을 먹어가며 여러가지 건강법을 공부하고 열심히 실천하며 근근히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오고 있다.

運動도 열심히 해보고, 冷水摩擦도 오래 해보고 요가와 仙道法도 해보고 벤넬健康法, 丹田呼吸, 自然健康法등도 해보고 현재도 수종의 건강법을 하고 있다.

나는 1970년2월에(나의 나이 58세時)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였다. 아때 2년간 消化不良治療를 위하여 鍼灸治療를 받고 있었는데 특수한 鍼法 즉 八象醫學에 의한 八象體質鍼法으로 治療를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의 체질을 誤診하여 치료하니 효과가 없더니 약6개월후에 나의 체질을 다시 진단하여 太陽人으로 보고 치료를 해주더니 다음날부터 消化不良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1주일간의 치료로 완치가 되었다. 이때 나의 기쁨은 한량없었고 이러한 神效한 의술이 있었는가 하고 感歎하였다. 나는 이 八象醫學, 體質鍼法에 반하여 그후 열심히 수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수배개월내에 숙달하게 되고 그후 약20년간에 많은 痼疾病, 難治病患者를 치료해 주고 있다.

八象醫學은 四象醫學에서 발달된 것이고 漢醫師 權慶沅박사가 창안한 것이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의학이다. 八象體質(8種體質)의 체질진단법은 이것도 權慶沅박사가 발명한 特殊脈診法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 八象脈診法이 배우기가 어려워서 八象醫學은 잘 보급이 안되고 있다. 八象醫學에는 각체질마다 음식품에 해가 되는 것과 유익한 것이 있고 해가 되는 음식품을 먹지말아야 병이 治療가 된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환자들을 치료하여 보면 해가 되는 음식품을 안먹도록 하고 치료를 하면 잘 치료가 되는데 완치후에도 환자가 해가 되는 음식품을 먹으면 병이 재발하게 된다. 癒疾病患者라도 해가 되는 음식품의 섭취를 장기간(6개월이상 1년정도) 금지하면 모르는 사이에 病이 自然治療되는 예를 많이 보았다.

나는 20년간 八象醫學을 연구하고 그의 優秀性에 반하고 있으며 이것을 될수 있는데로 널리 보급시키고 싶은데 體質判定法이 애매하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87년 가을에 각체질에 해가 되는 食品과 유익한 食品을 判別하는 方法을 發明하게 되었다.

한가지는 내가 발명한 腕力調査法이고 또 한가지는 日本人醫師가 발명한 大村氏 指力調査法(Omura Test, Bi-Digital O-Ring Test)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食品의 해, 유익성을 판별하는 법이다.

이들 두 조사법의 시행방법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해볼수 있다. 左手에 食品을 쥐고(들고) 右필의 힘의 强度 또는 右手指의 힘의 强度를 조사하면 된다. 左手에 쥔 식품이 해가 되는 것이면 右手의 힘이 약해져서 팔의 힘이나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즉석에 알수 있다. 左手에 쥔 식품이 유익한 식품이면 右手와 手指의 힘이 원상태로 세게 유지되고 있다. 이 렇게 腕力이나 指力調査法으로 우리가 일상 먹고 있는 음식품의 해, 유익성을 판별해 내는 방법은 나의 창안이다.

이 방법을 써서 여러사람에 1백종이상의 식품을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四象醫學(4種體質 :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陽人)적으로 구별이 되나 八象醫學적으로는 구별이 안되었다. 나는 八象體質醫學이 옳다고 믿고 있어 八象體質의 판별법을 계속 연구중이다.

指力테스트나 腕力테스트를 정확하게 할수 있는 기계가 발명된다면 과학적이 되고 이 體質論이 곧 일반에 보급되게 되리라고 본다.

우리 同窓중 機械工學을 전문한 분이 指力이나 腕力테스트기계를 연구 발명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人類의 건강증진과 번영을 위해서!

丹脣皓齒

同門 수필

네 이는 덜을 깎으려고 목욕시킨 양떼같아라. 새끼없는 놈 하나없이 모두 쌍동이를 거느렸구나.

네 입술은 새빨간 실오리 입은 예쁘기만 하고 너울 뒤에 네 뺨은 석류한쪽 같구나.
(구약 아가4장2~3절)

붉은 입술 가지런한 흰이 丹脣皓齒는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한 양귀비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이른 말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름답고 매력적이 되고자 한다. 미모라는 것이 건강한 자태에서 오는 것이든 내재적인 교양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든 어떤 이미지이건사람을 취하게 하고 홀딱 반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미모란 『숩보다도 더 독하다』 보는 사람과 그 소유자 자신도 취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평한 사람도 있다.

얼굴은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이다. 그 얼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옛부터 여성들은 화장을 하며 남성들도 턱수염에끼지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얼굴중에서 미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겠는가? 칸트는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 하였고, 흑자는 여성의 매력중에서 근원은 눈이라고 하였다. 눈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울임에 틀림없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아가6장12절) 라고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明眸皓齒란 말이 미인의 대명사같이 이르기도 하였다.

코는 남성의 상징이라 한다. 그렇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낮았다면 세계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을 코에서 찾은 이도 있다.

다음에 입을 보자. 미모로서 입은 脣과 齒로 표현된다. 입은 사람을 대할때 가장 잘 나타나고 돋보여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다. 의사소통 인상 표현이 가장 잘 보여지는 초점이 되는 곳이다. 결국 지색이라던 양귀비는 입술과 치아로표현되는 丹脣皓齒의 미색이 되었다. 입은 입술과 치아로 표정지어지지만 첫째는 웃음이리라! 미소이리라! 린유탕(林語堂) 박사는 웃음은 近情이라는 명구를 주었지만 그만큼 웃음은 정이 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웃는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는 속담말고라도 웃음을 천시할 수 없으니 인간사의 슬기를 말하는듯 싶다. 그랜넬은 인간만이 웃는 재주를 갖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였다. 사람이 웃을때는 17가지의 안면근육이 작용한다.

具 箕 書
〈63년 齒大卒 · 具齒科醫院長〉

여성에게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없다면 아무리 미모가 아름답고, 샛별같은 눈이 슬기롭다 한들 사막이요, 황량함이요, 적막강산이리라. 웃음은 분노, 불안, 스트레스, 혈압, 맥박, 체온, 면역들질, 스트레스에 의한 몸의 손상, 흠몬분비등 신체의 탁월한 청량제구실을 한다.

나는 미소에서 미모를 찾게 되었지만 웃음띤 얼굴의 앵두같은 입술, 밝고 가지런한흰 이는 동서고금이 서로 만나는 단순호치와 아가에서 찬미한 이와 입술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양떼같이 흰 이, 홍색 실오리같은 입술의 웃음과 아름다움 영원하리라.

▲高柄翊(47년 文理大卒·한림大 교수·本會理事)=세계碩學 30명으로 구성된 유네스코실크로드 종합연구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金永敦(49년 師大卒·前師大同窓會長)=최근 퇴직교육자의 전국적 모임인 사단법인 大韓三樂會 제5대 회장에 피선.

▲金宗西(49년 師大卒·德成女大 總長·本會理事)=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38차 정기총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韓泰熙(50년 工大卒·金星社 社長·本會理事)=4월21일 과학의 날에 우리나라 技術用役의 해외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공로로 銀塔산업훈장을 받음.

▲劉奉鎬(52년 師大卒·梨大 敎授·本會理事)=韓國敎育學會 회장으로서 오는 6월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中等敎育의 危機와 對策」이라는 주제로 夏季學術大會를 개최할 예정.

▲李 寬(53년 工大卒·前科技處長官·本會理事)=4월4일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상임고문에 선임됐다.

▲高允錫(54년 文理大卒·母校 自然大 敎授·本會理事)=4월11일 발족한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 산하 기초과학연구활성화 사업 추진본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金善弘(55년 工

▲申昊澈(56년 齒大卒·大韓齒科醫師協會 명예회장)=4월8일 열린 제38차 치과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8회 협회대상 공로상을 수상.

▲鄭泰薰(57년 文理大·韓國農機具協同組合理事長)=지난 4월21일 中國吉林省 연길시 농기계 장및 트랙터廠長의 초청으로 현지合作投資및 수출가능성 조사, 공장시찰 등을 마치고 5월3일 귀국.

▲成玲秀(58년 工大卒·韓國科學技術硏究所 시스템공학센터 所長)=4월21일 과학의 날에 우리나라 情報産業 육성에 선구적 역할을 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朴奢烈(58년 師大卒·경기도교육위원회 율곡교육연구원교館 지하 마로니에에서 저서 「젊은 사관후보생의 슬픈연가」 출판기념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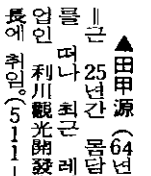
▲金鎭福(58년 醫大卒·母校 醫大 敎授·本會理事)=최근 열린 大韓癌協會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에 선임됐다.

▲蔡範錫(58년 醫大卒·母校 醫大 교수·本會理事)=大韓醫學協會에서 선정하는 제21회 동아의료문화상 저작상(사람의 영양학)을 수상.

▲李金器(59년 藥大卒·日東製藥社長·本會理事)

▲鄭興淑(63년 師大卒·中央大 敎授)=최근 敎文社에서 「近代服飾文化史」를 펴냈으며, 오는 8월23일에는 유럽 풀츄갈에서 열릴 國際服飾學會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

▲郭秀一(63년 商大卒·母校 經營大 敎授)=최근 한국컬럼비아대학교 사회에서 새회장으로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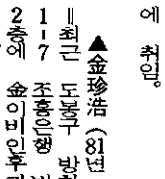
▲金 國(64년 工大卒)=최근 現代를 그만두고 금나라(주)를 설립.(568-7221). 또 강남구 삼성동에 마인레스토랑을 개업.(551-0820).

▲田甲源(64년 工大卒)=근 25년간 몸담았던 現代를 떠나 최근 레저스포츠사업인 利川觀光開發을 설립, 社長에 취임.(511-5134)

▲鄭助英(64년 文理大卒·韓國科學技術團體총연합회 常任副會長·本會理事)=기초과학육성과 在外과학자 국내 유치 등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한 업적으로 제22회 과학의 날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黃斗英(69년 行政大學院卒·明知實業專門大學敎授·本會理事)=지난 5월2일 本會會館 5층 관악홀에서 열린 韓國새마을금고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會長으로 선출됐다.

▲都明正(73년 環境大學院卒·本會理事)=서울시올림픽기획관으로 재직하다가 2월16일부터 연말까지 내무부 地方行政硏修院에 入校, 연수중. 또 4월11일에는 올림픽 유공으로 체육훈장 巨象章을 받음.



▲朴正男(74년 經營大學院卒·신한기공건설㈜ 차장·本會理事)=최근 재단법인 韓國이슬람敎 사무총장에서 이사장에 취임.

▲金珍浩(81년 醫大卒)=최근 도봉구 방학동 691-17 조흥은행 방학동지점 2층에 金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원.

▲兪惠蘭(86년 美大卒·畵家)=지난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일주일간 종로구 사간동 윤갤러리에서 「도시」를 畵題로 한 개인전을 개최.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717) 8536~7

人事

▲尹泰圭(48년 農大卒)=최근 慶南大 교수에서 慶尙大 農大 교수로 전임.

▲池高夏(56년 農大卒·本會理事)=최근 農林水産部 축산국장및 국립동축원장직을 겸으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忠南大 農大 교수로 부임.

▲李相七(56년 法大卒)=全北道企劃管理室長에서 全州市長으로 전임.

▲辛建鎬(57년 文理大卒)=4월1일 農水産物유통공사 부사장에서 정부투자 기업체인 韓國冷藏株式會社 사장으로 취임.

▲李一徹(57년 師大卒·本會理事)=4월24일 仁川敎大 교수에서 學長에 취임.

▲朴商勳(60년 文理大卒)=최근 勤勞新聞社 主筆에 취임.

▲崔同燮(55년

▲朴汀林(65년 工大卒)=최근 大宇 건축기술부이사에서 大宇 건설기술연구소장(상무)으로 승진.

▲金鼎煥(65년 文理大卒)=최근 文化放送 라디오副局長에서 局長으로 승진.

▲金學俊(65년 文理大卒·母校 敎授·本會理事)=지난 4월22일 大統領 사회담당 보좌역(차관급)에 임명됐다.

▲張仁植(65년 文理大卒)=최근 KBS 영화부장에서 TV편성실 부실장으로 승진.

▲崔南植(65년 商大卒)=최근 현대정공㈜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

▲金壽淵(70년 文理大卒)=최근 韓國産業銀行 국제금융부에서 文書部 비서역으로 전보.

▲金顯俊(73년 農大卒)=최근 農協中央會 횡성군지부에서 신탁중권부 신탁추진과장으로 전보.

▲金京南(73년 師大卒)=최근 태능중학교에서 태능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李熙大(74년 保健大學院卒·本會理事)=최근 교수협의회의 투표에 의하여 大邱漢醫大學長에 취임.

▲金潤坤(78년 行政大學院卒)=지난 4월15일 서울市 公報계장에서 九老區 總務課長으로 전보.

▲南寬熙(79년 經營大卒)=최근 雙龍投資證券 청주지점으로 전보.

▲金尙律(84년 工大卒)=최근 三星航空産業㈜ 제2공장 엔진생산계획팀으로 전보.

▲安光碩(85년 工大卒)=지난 3월1일 大田專門大 환경관리과 전임강사로 임명됐다.

▲吳玧煥(85년 行政大學院卒)=최근 成業公社 감사에서 부사장으로 영전.

掲示板

▲李泰憲(60년 工大卒)=최근 현대엔지니어링 기전사업본부 理事로 전보.

▲黃興煥(60년 文理大卒)=5월1일 서울市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江南區廳 企劃監査課長으로 전임.

▲趙光秀(58년 醫大卒)=최근 東水原病院 건강관리과장에 취임.

▲田道潤(58년 藥大卒)=최근 마약중독해독제 생산수출전문회사인 세림제약 대표이사에 취임.

結婚

同窓會 新任副會長 李洙彬 동문

同門을 찾아서

동창회는 동문들의 숙원이었던 會館建立을 마무리짓고 이제 새 名簿 발간, 10억기금 조성사업등 90년대를 내다보고 제2의 跳躍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지난 定總에서는 4명의 副會長을 새로 영입했고, 동창회는 이들에의해 새로운 活力으로가득차 있다. 동문들 또한 여느때와는 달리 이들 新任副會長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큰것같다.

이번호 「同門을 찾아서」는 이러한 동문들의 뜻에 따라 李洙彬부회장(61년 商大卒·東邦生命保險 社長)을 만났다.

副會長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간단하게 취임 所感을 말씀해주시죠.

『여러가지로 資格이 부족하고 또한 우리 그룹內에도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 몇번을 사양했습니다만, 일단 선임이 됐으니 會長님을 모시고 미력이나마 성심 성의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李부회장은 뜻밖의 중임을 맡고 보니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겸손해 한다.

1939년 慶北星州 태생인 李부회장은 61년 모교 商大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65년 공채 6기로 三星그룹에 入社했다.

李부회장은 三星의 엘리트코스인 공채출신인 맥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입사 12년만에 第一毛織 사장을 맡을만큼 李秉喆회장의 신임도컸던 李부회장은 第一製糖 경리과장시절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당시 第一製糖은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받고 있었는데 李부회장은 의 모조리 외워 조사반을 놀라게 했다.

3개월간이나 계속된 사찰에도 아무런 지적없이 지나가자 곧바로 그룹 비서실에 발탁됐고, 얼마안돼 차장(常務)으로 승진, 李부회장은 이때부터 세칭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비서실 재직 5년만에 第一毛織 정무로 승진했고 이듬해 점상인 社長에 올라 그동안第一合纖 사장, 第一製糖 사장, 三星라이온스단장, 三星航空 사장, 東邦生命保險 사장등 12년째 계열사를 두루옮기며 長壽社長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수한 실력과 좋은 학력을 갖고도 재벌그룹의 간판회사에 취직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人材들의 경쟁틈바구니에서 최고경영자의 자리에까지 오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어려운 사장자리에 장기재임하고 있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비서실에서 다른사람보다 빨리 經營에 관한 경험을 한것이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일을 내일같이 최선을다한다」라는 것이 내신조지요. 이른바 主人의 식이라고나 할까요』

"基金조성에 모든 努力 쏟을터"

公採6期 三星맨, 企劃의 秀才

—東邦生命保險 사장취임후 資産규모및 保有계약고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구상은.

『85년 2월 2兆규모이던 자산이 지난해 8월 제2금융권에서는최초로 5兆를 돌파했고, 지난 4월말 현재 6兆3천억에 이릅니다. 보유계약고도 매년 10兆씩 늘어나 65兆에 달합니다. 이정도면 國內에서는 다른 회사들의 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인데, 이를위해 현재 분야별로 「先進指標」를 마련, 90년대초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회사를 만들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국내최초로 가장 많은 계약자배당을 실시, 업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 李부회장은 이같은 성장비결에 대해 人事組織관리및 자산운영쪽에 혁신을 기한 결과라고 밝힌다.

바람직한 보험인상으로 「長期體質」과 「國際感覺」을 강조하는 李부회장은 끝으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임직원의 열의만으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전동문의 참여를 호소한뒤, 미력이나마 副會長으로서 기금조성등 동창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하면서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

가족으로는 부인 鄭永淑여사와의 사이에 1男2女를 두고 있는데, 長男이 모교 工大 電子工學科 3년에 재학중이어서 머지않아 父子동문관계가 이루어질 전망.

▲金正培(55년 工大卒·三星電管 社長)‖4월21일 과학의 날에 첨단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해외경쟁력 제고및 수출중대에 기여한 공로로 銅塔산업훈장을 받음.

▲李相滿(56년 默醫大卒·대부중고校長·本會理事)‖5월13일 부산해운대콘도에서 열린 걸스카우트 창립43주년기념 공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기계공업진흥회창립20주년을 맞아 金塔산업훈장을 받음.

▲丁海昌(60년 法大卒·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本會理事)‖최근 열린 고시동지회(司法·行政고시합격자모임) 89년도 정기총회에서 33대 회장에 선출됐다.

▲任珍昌(60년 師大卒·西江大 敎授)‖최근 서강대학교 언론사 편집인겸 주간교수로 임명되었으며, 교무위원으로 선출됐다.

▲李景勳(60년 商大卒·大宇重工業社長·本會理事)‖최근 기

▲崔東植(66년 文理大卒·正音社 대표 편집위원·本會理事)‖최근 89~91년까지 임기의 유네스코 위원(자연과학분야)으로 위촉됐다.

▲安輝濬(67년 文理大卒·母校 人文大 敎授)‖韓國古美術연구소기 제정한 제7회 東垣학술상을 수상. 수상저서는 「韓國繪畫의 傳統」.

▲安在東(67년 商大卒)‖최근 강남구 신사동612에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주)안·인테리어를 설립하고 회장에 취임.

▲李賢宰(53년 商大卒·前母校總長·本會理事)‖5월17일 열린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이사회에서 제7대 院長에 선

▲吳相壞(55년 工大卒)‖최근 호남탱카(주) 대표이사에 서상

▲鄭韶永(55년 商大卒·前農水産部長官)‖4월4일 열린 생명보험협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趙澤英(55년 商大卒·

임고문에 추대됐다.

▲尹赫基(61년 文理大卒·本會理事)‖최근 KBS副社長에 취임.

▲殷英培(61년 文理大卒)‖4월6일 세무대학 교수에서 수원세무서장으로 전보.

▲金律燮(63년 法大卒)‖최근 서울信託銀行 부평지점장에서 담십리지점장으로 전보.

▲柳承國(61년 文理大卒)‖지난 4월1일 합참 본부장(중

國土地開發公社 이사장에 임

▲韓

명됐다.

▲韓

명됐다.

▲韓

명됐다.

▲이수인(85년 社會大卒)군·이현숙(88년 社會大卒)양‖6월2일 오후2시.

▲최웅림(81년 美大卒)군·오윤선양‖6월3일 오후2시30분.

▲김흔구(88년 人文大卒)군·박혜경양‖6월3일 오후4시.

▲김홍열(83년 工大卒)군·전현영(87년 農大卒)양‖6월4일 오전11시.

▲김학린(86년 工大卒)군·황수경(88년 工大卒)양‖6월4일 오후2시.

▲이재균(87년 社會大卒)군·장혜진양‖6월4일 오후3시30분.

▲조홍선(86년 師大卒·韓대우)군·홍석향양‖6월10일 오후1시30분.

▲김재구(86년 經營大卒)군·허소정양‖6월10일 오후3시.

▲이명규(大學院 재학중)군·이은숙양‖6월11일 오전11시30분.

▲현창섭(84년 農大卒)군·유문정양‖6월11일 오후4시.

▲김용주(89년 醫大卒)군·장영순(88년 醫大卒·한일병원 간호사)양‖6월11일 오후1시.

▲김상현(大學院 재학중)군·박경희양‖6월17일 오후2시.

▲박상영(82년 師大卒)군·김경순양‖6월17일 오후3시30분.

▲이강민(85년 師大卒·력키화재)군·유영미양‖6월18일 오후1시30분.

▲황보영춘(86년 大學院卒·세계일보사)군·이윤옥양‖6월18일 오후3시.

▲김용범(89년 工大卒)군·임정란(89년 家政大卒)양‖6월25일 정오.

▲이현성(人文大 재학중)군·권혜영(人文大재학중)양‖6월25일 오후1시30분.

▲김용진(83년 自然大卒)군·박미애양‖6월25일 오후3시.

마음인가 肉体인가

健康교실 ㉕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명예교수

나이가 많아도 정정한 노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억력이 좋고 감정도 풍부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이를 먹게 되면 성격이 변화되어 사람이 달라진다. 너무 지나치게 사람이 달라지면 머지않아 세상을 떠난다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도 그럴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의 두가지를 二元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튼튼하지 못하면 육체도 고장이 생기기 쉽다는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을 분명하게 나누어 생각할수는 없다. 그러나 두가지중에 어느것이 더 주동적인가 하면 딴 동물은 몰라도 사람의 경우에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보통 「身老心不老」라는 말을 하는데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늙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적고, 사실은 「心老身不老」가 더 많지 않은가 생각된다. 마음은 노인이 다 되었는데 육체적 정력만 남아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情事를 저지르다 노후를 망치는 더티·올드 맨(Dirty Old Man)도 있으니 말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가 희어지는것은 어쩔수 없는 經年變化이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을 상실하면 마음에 주름살이 잡힌다고 갈파한 사람이 있다. 아닌게 아니라 마음만은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나이에 따라서 성격변화가 생기는 것을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①젊었을 때의 性癖이 나이와 더불어 더욱 뚜렷하게 강화되는 경우… 참을성없고 편굴하고 난폭한 성질이 젊었을 때는 어느정도 제어가 되던 것이 나이가 좀 많아지면 점점 노출시켜 꺼리지 않게 된다. 진실하고 정확한 성격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늙어서 독선적인 고집불통이 되는 것도 그런 예이다.

②젊었을 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명랑하던 사람이 침울한 성격으로 변한다던가 사교성이던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던가 진지한 도덕군자가 세속적인 호색가가 된다던가, 돈아까운줄 모르고 낭비하던 습성이 수전노가 되어버리는 등의 경우이다. 일종의 反動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③젊었을 때의 성격이 모가 떨어지고 원만하게 되어 사람들과 더욱 조화가 잘 되는 경우…거칠고 조급하고 융통성 없던 성격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원만한 성격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같은 성격변화가 느닷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니고있던 여러가지 요소들 그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어떻게 반성하고 노력하여 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나 노인이 되어 성격이 너무나 변해서 그 사람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우선 뇌의 병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요새처럼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허물어져 본적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마음이 약하고 뚜렷한 주관이 없는 사람은 換腸되기 쉽다. 두뇌의 정신기능은 20세가 지나면 벌써 작한다. 정신활동의 퇴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감퇴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이와같은 뇌세포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의 전부는 아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癡用性萎縮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쓰지 않으면 기능이 약화되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 직업, 사회적 역할, 취미, 교우관계등이 점차 감소되며 특히 정년퇴직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그런때에 하는 일 없이 고독한 가운데서 안일한 생활을 하면 마음의 노화가 가속화된다. 특히 소극적, 내성적, 비사교적인 성격인 사람에게 생기기 쉽다. 그렇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고 運動慾과 性慾이 약해진다. 운동욕이 저하되면 하는일 없이 하루를 보내도 답답한 것을 모르게 되며, 그렇게 되면 더욱 활동을 싫어하게 된다. 성욕은 20세경이 최고이고 그것을 피크로 하여 점차 안정되게 마련인데 성욕에는 신체적 성욕과 심리적 성욕(섹스에 대한 관심과 욕구)이 있는데 신체적 성욕은 쇠퇴하여도 심리적 성욕은 오래 지속된다. 이밖에도 권력욕, 명예욕, 物慾 등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어 욕망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어느 욕망이건 잘 컨트롤하여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늙으면 그 능력이 떨어져서 욕망표현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그게 바로 老醜가 되는데, 늙어도 그렇게되지 않고 곱게 늙는 법은 없는 것일까.

趣味生活

바둑篇

—朴 治 文
〈79년 人文大卒·世界日報記者〉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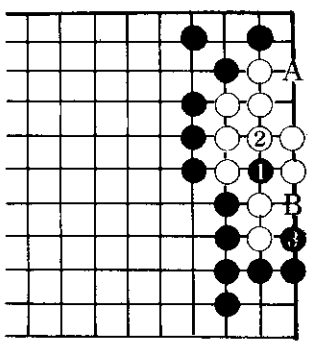
自充의 脈

死活은 근본적으로 돌의 배치에 대한 철저한 이용이다. 그중에서도 自充의 脈은 자기돌이 죽여 자기돌이 죽는 배저린 맛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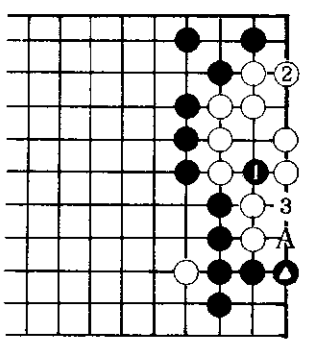
〈문제1〉 아주 쉬운 형태다. 보통은 A와 B가 맞보기여서 살수 있지만 1線에 놓인 黑 ㉠가 白을 인도한다.

〈1도〉 黑1로 먹여치는 수가 白의 명맥을 끊는 수. 黑㉠의 기착점으로 인해 白은 A에 두지 못한다. 白2로 집을 낼때 3으로 파호하여 白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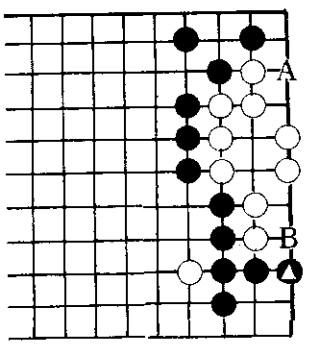
〈2도〉 黑1로 먹여칠 때 白2로 따내면 黑3으로 기어들어가 A, B의 맞보기로 白이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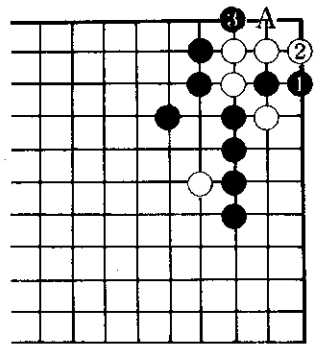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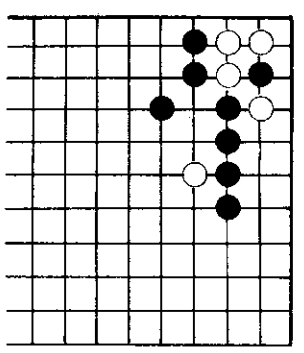
〈1도〉…먹여치는 脈



〈문제1〉 黑先白死



〈3도〉…늘여 죽이는 脈


〈문제2〉 黑先白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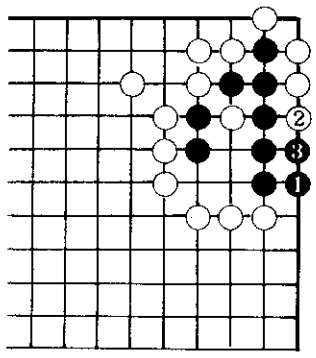
〈문제2〉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다. 그러나 5, 6급의 바둑에서도 이형태는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상이다. 「自充의 脈」이란 「눈의 착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한눈에 보기 어렵다.

〈3도〉 黑1로 빠지는 수가 소위 「늘여 죽이는 脈」에 해당하는 급소로서 白의 자충을 유도한다. 白2로 잡을 때 黑3으로 젖히면 白은 A에 둔수 없어 잡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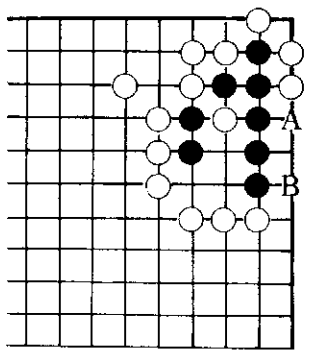
〈4도〉 黑1 빠질 때 白2쪽에서 잡으면 自充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黑3 젖히고 白4 막을 때 黑5 기어들어가 역시 두질을 낼 수 없다.

〈문제3〉 기묘한 형태다. 自充의 脈을 잡는데도 쓰이지만 사는데도 유익하게 쓰인다. A로 막으면 B로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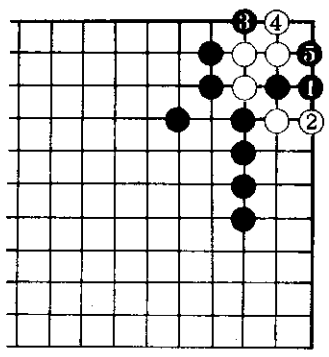
〈5도〉 黑1로 두는 수가 상대의 自充을 이용하는 유일한 活路. 白2로 파호하면 黑3으로 몰아 白 석점이 잡히게 된다.



〈5도〉



〈문제3〉 黑先活



〈4도〉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 ‖ 2월26일~3월4일까지
會員 ‖ 2월26일~3월4일까지)

同門여러분의 뜨거운 精誠을 기대합니다

※ 人名밑의 괄호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理事

◇家政大學

▲崔明珍(69) 주부

◇工科大學

▲姜榮國(63) 대우중공업중앙연구소장
▲慶世浩(57) ㈜쌍방울대표이사
▲金辦洙(57) ㈜상양사부사장
▲成樂正(54) 경인에너지㈜사장
▲宋基德(57) 정일엔지니어링㈜사장
▲宋在奎(59) 대한석탄공사안전본부장
▲柳時永(59) 동력자원연채탄기계화본부장
▲尹稷相(58) 삼미종합특수강㈜사장
▲李元培(55) 한전신규발전사업단장
▲李喜鍾 금성산전㈜사장
▲全晥烈(48) 유신설계공단㈜대표
▲鄭祥根(54) 상진개발㈜대표이사
▲池 淳(58) 연세대학교이공대교수
▲韓亨洙(64) 삼성코닝㈜사장
▲玄喜憲(59) 최신물산㈜부사장

◇農科大學

▲金億年(66) 세기어패럴대표
▲金完圭(55) 청원농산㈜사장
▲宋在寬(56) 박애병원이사장
▲沈完祚(61) 롯데자관기운영㈜사장
▲沈載德(62) 동서철강㈜대표
▲鄭雲朝(52) ㈜유신상호신용금고고문

◇文理科大學

▲高允錫(54) 서울대자연대교수
▲權泰完(59) 한국과학기술원식품원과장
▲金龍祚(59) 용만인터내셔날사장
▲朴相大(60) 서울대자연대교수
▲徐明源(46) 전문교부장관
▲申東澔(57) 조선일보전무이사
▲梁在炫(51) 탁국대부총장
▲李斗馨(64) 보건사회부차관
▲李昌洙(64) 삼의건설㈜사장
▲林芳鉉(53) 민정당중앙위의장
▲張成周(71) ㈜삼호특강사장
▲鄭春澤(58) 전한국산업은행총재
▲崔容根(63) 한성안전사업사사장
▲韓甲洙 한국산업연구원원장
▲韓炳淳(60) 한국에너지연구소소장

◇美術大學

▲朴在鎬(63) 경희대미대교수

◇法科大學

▲姜慶植(61) 전재무부장관
▲康祐赫(62) 국회의원
▲姜在涉(74) 국회의원
▲高宗鎭(60) 동산토건사장
▲郭正出(63) 전국회의원
▲金潤慶(57) 부산고등법원장
▲金贊鎭(63) 변호사
▲南載熙(58) 국회의원
▲文仁龜(50) 변호사
▲朴健雨(61) 의무부의전장

◇商科大學

▲姜金植(67) 국회의원
▲郭治榮(65) 한국대이타통신상무
▲金 憲(56) 한전톨산대표
▲金奎鉉(56) 한일은행상무이사
▲金東漢(56) 신룡건설산업사장
▲金相勳(64) 현대강관㈜사장
▲金成圭(63) ㈜한효개발사장
▲金英鍾(56) 조흥은행장
▲金應祚(66) 동광통신부사장
▲金珍浩(57) 한도투자금융사장

◇藥學大學

▲姜才昊(58) 신신약국
▲鄭之碩(64) 한미약품공업㈜전무

◇醫科大學

▲金炳極(50) 대한생명보험
▲金尙敏(58) 경희대의대안과
▲金相仁(55) 서울대임상병리과교수
▲金戰榮(53) 순천의원장
▲金鎭福(58) 서울대병원일반외과장
▲朴聖泰(64) 새서울의원장
▲徐浚根(57) 서준근의원
▲成樂應(50) 이화의대생화학교수
▲申萬鏞(48) 고려대의대명예교수
▲吳俊湖(51) 오산부인과
▲柳聖熙(60) 동서울병원장
▲李仁洙(48) 순천향의대신경외과장
▲李弼雨(59) 이필우의원장
▲鄭鎭澤(50) 정외과의원장
▲崔振學(55) 경상의대병원장

◇齒科大學

▲權泰仁(78)
▲朴武鎬(80)
▲安경모(82)
▲黃해근
▲조은미
▲김인배(78)
▲박종덕(78)
▲이봉형(80)
▲한대명

◇社會大學

▲김기범(85)
▲김우철(83)
▲손희매
▲심한보(86)
▲이상홍(85)
▲전수봉(86)
▲조태용
▲김선동
▲박해선
▲신두영(82)
▲육홍타(76)
▲이천림(81)
▲정관영(79)

◇自然大學

▲김 택
▲김진석(83)
▲서인실(85)
▲신동훈
▲이용재(78)
▲이창환(82)
▲정해진(86)
▲최 효(78)
▲한광선(79)
▲김제완
▲김용곤(78)
▲박기석(56)
▲송도영(85)
▲유재혁(83)
▲이재민(77)
▲임 영(85)
▲주순오(53)
▲최한무(86)
▲길우철(71)
▲홍영남

◇家政大學

▲김영희(64)
▲김징숙(73)
▲박윤경
▲성현경(76)
▲염정희(80)
▲오명숙(74)
▲이선자(73)
▲조정자
▲최난희(87)
▲한영숙
▲김윤경(86)
▲김죽희(58)
▲박희순(64)
▲송인영(75)
▲예진희(86)
▲이민희
▲장유경(63)
▲진영순(78)
▲최정신(71)

◇經營大學

▲김기식(86)
▲김연성(80)
▲김한운(86)
▲방성제
▲서진국(85)
▲신용삼(77)
▲이대찬(86)
▲심병주(53)
▲김성효(88)
▲김정완
▲문영국(86)
▲배영효(82)
▲신동환(82)
▲원종훈(85)
▲허진호(78)

◇工科大學

▲강홍식(58)
▲고창준(86)
▲고충훈
▲권익현(73)
▲김광식(51)
▲김기중(57)
▲김대웅(67)
▲김문환
▲김석수(77)
▲김성태(55)
▲김영규
▲김영조(64)
▲김연식(56)
▲김용직(79)
▲김인환(73)
▲김재선(56)
▲김종진
▲김태모
▲김현석(86)
▲고재선(52)
▲고창현
▲권오갑(71)
▲김광무(87)
▲김광현(84)
▲김기홍(63)
▲김덕원(76)
▲김봉근(80)
▲김성년(72)
▲김시환(75)
▲김영선(77)
▲김영휘
▲김완주(84)
▲김인기(63)
▲김일두(64)
▲김종련(55)
▲김종환(68)
▲김현기(60)
▲김현우(86)

◇師範大學

▲朴永泰(55) 한일은행삼무이사
▲朴一鉉(57) 변호사
▲孫鍾奭(64) 중앙교무원교육원장
▲宋庸植(55) 전국회의원
▲安二濟(50) 변호사
▲梁昌德(52) 우림기업㈜회장
▲吳有邦(63) 국회의원
▲李康煥(58) 대한교육보험부회장
▲李星圭(56) 제일은행감사
▲李淳雨 변호사
▲李元淳(56) 국회의원
▲李載仁(54) 변호사
▲李廷武(64) 국회의원
▲李珍雨(56) 국회의원
▲李振煥(64) 위례상업고등학교
▲任洪彬(56) 문학사상사회장
▲張珉淳(59) 쌍용정유㈜전무
▲鄭熙彩(52) 서울시립대총장
▲崔炳喆(61) ㈜동성전무
▲玄明官(63) 호텔신라전무
▲玄在賢(71) 동양시멘트㈜사장

◇默醫科大學

▲白文英(68) 영지문화사
▲李衡雨(60) 이수의과병원
▲鄭鎭華(56) 서울가축병원
▲金琛謙(58) ㈜쌍용양회사장
▲金春植(69) 계몽사사장
▲朴淳圭(64) 신한투자금융부사장
▲朴正烈(65) 한국타이어㈜사장
▲朴宗基(58) 한미상사사장
▲朴憲斗(64) 한국체인공업대표이사
▲邊昌基(58) 동방산업사대표
▲徐泰植(63) 삼일회계법인회장
▲成樂正(50) 경인에너지㈜사장
▲宋仁相(55) 한미협회회장
▲沈大平(66) 축남도지사
▲沈載榮(64) 미쉐린타이어㈜사장
▲梁昇鉉(48) ㈜경방고문
▲陰龍基(64) 현대중공업㈜부사장
▲李相淇(61) 한무개발㈜전무
▲趙 碩(50) 삼상사부사장
▲崔正煥(55) 우성식품㈜사장
▲許南珏(60) 삼양통상㈜사장

6월은「會費完納의 달」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의 납부 지연으로 奬學事業을 비롯한 母校돕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의 대부분의 事業이 上半期에 쏠려있는 점을 감안, 6월을「會費完納의 달」로 정했습니다. 母校 발전과 동창회의 活性化에 도움을 주시는 뜻으로 여기시고 未納동문들께서는 이달말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會費내역 —

- 一般會員 …… 1만원
- 理 事 …… 5만원
- 常任理事 …… 10~20만원
- 監 事 …… 30만원
- 副會長 …… 50만원
- 會 長 …… 1백만원

◇大學院

▲沈相晟(62) 중권거래소이사장

◇經營大學院

▲金秉權(72) 두성정밀㈜대표이사
▲金潤澤(70) 대광산업㈜회장
▲金成龍(64) 김성용치과의원장
▲金宗哲(66) 세종치과의원장
▲金學聖(49) 중앙치과의원장
▲夫三煥(64) 부삼환치과의원장
▲辛在義(70) 신재의치과의원장
▲梁精康(62) 양정강치과의원장
▲禹亨植(65) 우치과의원장
▲李種守(56) 이종수치과의원장
▲崔旭煥(61) 최욱환치과의원장

◇保健大學院

▲朴南永(60) 국립보건원행정과장
▲申鶴均(61) 국립보건원병독과장

◇新聞大學院

▲劉日濱(75) 일진운수사장

◇行政大學院

▲趙性蓮(61) 대한건설진흥회회장

◇環境大學院

▲禹命奎(76) 국방대학원

◇司法大學院

▲徐次洙(63) 변호사

一般會員

◇人文大學

▲강덕식(80) ▲국은주(87)

14대 회장

◇ 법대 大學

▶ 김용준 (법 14)
▶ 김홍수 (법 14)
▶ 김홍수 (법 14)
▶ 김홍수

新刊 안내

※이 欄은 同門들께서 펴낸 新刊서적을 紹介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새로 저술한 著書를 本報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80년대우리문학의 이해

金允植 著

62년 大學院에서 學位取得, 母校人文大 교수이면서 文學評論家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著者가 大學敎養叢書로 펴낸 80년대의 視覺에서 한국문학의 현상과 흐름을 점철해본 문학교양서。

著者는 80년대의 우리문학을 日帝强占期를 거치고 解放空間, 6·25, 4·19, 5·16과 70년대를 거쳐 도달한 것이기에 문학을 이해하는 일이란 「그나라의 文學史의 理解水準」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文學史的 視覺이란 오늘의 문학이해의 지 指標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著書의 第1部를 「文學史的 視覺」으로 묶어 오늘날의문학현상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다루고 있다。

第2部 「우리 문학의 과제들」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표정들을 짓고 있는 것들로 민족문학론, 분단문학관, 解禁詩 評說, 국제시대와 우리문학,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문학, 88년 우리문학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서울大學校出版部刊 값3천원〉

□石吾 李東寧 研究

金錫營 外共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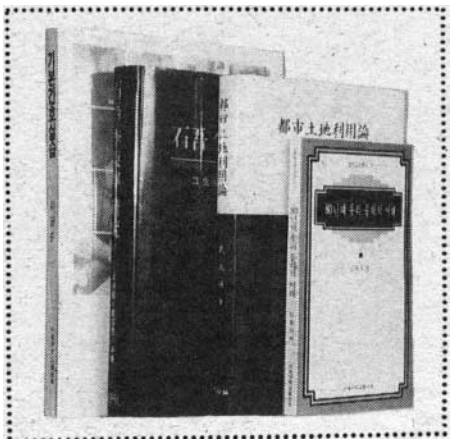
55년 法大출신의 사업가이며 作家로 誠信女大 李炫熙교수와 共著로 祖國光復을 先導했던 투철한 독립운동가인 李東寧의 업적을 여러 측면에서 再照明한 著書。

李東寧은 투철한 民族思想과 불굴의 독립정신, 불같은 신앙심과 겸허한 德行의 실천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감명과 교훈을 갖게 하는 師表가 되고 있다。 日帝36년간 그는 우리 民族史의 단절을 막기 위해 日人들의 갖가지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志操를 지켰던 인물로도 近世史에서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특히 상해臨政시절 초대 의정원 원장으로 大韓民國國號와 헌법을 제정하는 주도역할을 했고 대통령 및 主席을 역임하는등 민족진영의 正統과 法統을 이어가는데 대들보의 역할을 한분이다。

他界한지 49년이 되었으나 아직 정당한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李東寧의研究書가 出刊된 것은큰 의의가 있으며 민족적 지도자의 구실을 할만한 인물이 없어 흔미를 거듭하고 있는 요즘의 상황으로 볼때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깨움을 주는 著書이다。 〈瑞文堂刊 값8천원〉

□都市土地利用論

孔大植 著



60년 文理大政治科출신으로 都市行政學을專攻, 講壇에 서면서 不動産學과 土地經濟論에 대한 수권의 著書를 내고 있는 言論界출신학자로 土地政策의 종합적인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著書。

著者는 이책에서 토지소유권사상의 變質을 배경으로 토지는 소유보다 이용하는데 더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최근 급격한 土地化過程에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과 그 효율적인 토지이용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國論化되고있는 토지의 公益槪念을 실천하기 위한 基本指針을 상세히 提示하고 있다。

特記할만한 사실은 종은 토지공간의 입체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는 空中權과 그 가치에 관한 理論등은 不動産投機抑制에 부심하고 있는 토지, 주택정책당국자와 토지 소유자, 부동산업계를 비롯, 都市建設, 土地金融, 土地證券, 鑑定評價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좋은 研究資料가 될 것이다。 〈汎論社刊 값6천원〉

□朝鮮後期 史學史 研究

韓永愚 著

62년 文理大卒, 母校人文大교수로 조선후기 사학의 主流인 儒敎史學을 다룬 著書。

이책은 주요 史學者와 史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사학의 主流를 형성하고있는 유교사학을 깊이있게 다루고 있는데 著者가 1981년 발표한 「朝鮮前期 史學史研究」의 후속편으로 著者의 꾸준한 연구정신을 엿보게 하는 著述로 그동안 연구해온 近代史學史에 대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一志社刊 값8천원〉

□기본간호실습

金錦順 著

72년 醫大看護學科卒, 母校看護學科교수로 재직중인 著者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따라 간호술의 기본을도표와 사진을 곁들여 엮어낸 著書。

이 책은 著者가 기본간호학 및 臨床실습을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간호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교재용에 목적을 두고 저술한 것으로 사정간호술, 기본간호요구술, 치른가호술로 나누어 학습목표, 간호술에 관한 이론, 실습내용, 실습보고서, 연습문제등 기본간호학의 실습교재로 활용성 있게 꾸며져 있다。

특히 1백여가지 이상의 간호술과 많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있어 임상실습과 간호사들의 실무에 적용할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간호사에게 있어 대인관계술, 지적능력과 기술적 측면이 조화를이루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간호과정에 따라 간호술의 기본을 강조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의 자신에 찬 말이 된다는 거다。

그들의 자신에 찬 말이 나를 더 더욱 비감해지게 한다。 그야말로 이 나이의 주부들은 제2의 출발이 필요한가보다。 지나온 날을 회상하거나 낭만으로 연연해 하기보다는 또 과거 업적에 대한 보상을 구걸하기 보다는 톡톡털고 앞날을설계함이 현대적인 자세가 아닐까。 그러다보면 나 또한 무엇인가 한 구석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때도 올까?

『여보, 밥 안줄꺼요? 무얼 생각하는 거야? 지금이 몇 시라고…』

남편의 짜증섞인 소리에 퍽 일어선 나는 갑자기 바빠진다。 나도 어떻게하면 전공을 살릴 수 있을까하는 궁리는 다시 뒤로 미루어지고 만다。

專門人有感

家庭閑談

방정옥 女史

崔源永동문(醫大62년卒)夫人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같은 목소리의 젊은이한테서 딸을 찾는 전화가 잦아지고 있다。 남편보다는 아이들의 생활에 더깊숙히 자리하고 있던나는 그러기에 쫓겨난느낌이 더하다。 슬그머니 남편쪽으로 기대어 볼까하고 바라보니 남편도 나만큼이나 힘이 없어 보인다。

대학교수인 남편에게는 자신의 진공이 있고 아이들은 전문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 가족중에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유일하게 나뿐인데 이제는 전문인 양성을 하는 교육자라고 억지를 부리기에도 지쳤다。 은혼식도 지난 지금 가정에서 멍청해진 내게는 하나의 질은 의문이 있다。

포근하고 아늑한 인정의 맛이 배제된 기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전문로봇트 셋이 왔다갔다하는 창고를짓노라 일생을 보내고만 것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있다。

회진중에 선채로 잠이 들어버렸다는 어느 인턴의 이야기에서 나는 문득 모습도 잊혀진 6·25피난길에 한 사람을 떠올리고 전쟁의 극한 상황을 이야기해서 대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정신분열증의 진단방법을 들어야만 하는 입장에서 의식의 흐름이란 어떤것이라고 이해를 시킬자신이 없어서 후퇴를하고 만다。 그러나 전문가로서 으스대는 아이들의 핀잔에서 나는 할상 부조화의 묘한 그림자를 찾아 반격한다。

보통의 생각조차 못하는 특별한 수준에서어떻게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겠는가 또하나의 선택한 분야에대한 집중연구가 나머지 다른 모든것의 포기라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해 본다。 그러나 그들 세명은 유리한 고지에 선 우월한 답자의 여유로 나를 답랜다。

지적수준, 행동수준이나 사회적 인지능력등 모든 면에서 우수할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거니까 나만의 특성을 살린다는 것은 존재의 미를 갖는게 된다는거다。 내가 주장하듯 일반 수준에서 고르게조화를 갖춘다는 생각은 뒤떨어진 거란다。 하나의 강조가 자신 모두를 포기하거나 代替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다。

이 나를 더 더욱 비감해지게 한다。 그야말로 이 나이의 주부들은 제2의 출발이 필요한가보다。 지나온 날을 회상하거나 낭만으로 연연해 하기보다는 또 과거 업적에 대한 보상을 구걸하기 보다는 톡톡털고 앞날을설계함이 현대적인 자세가 아닐까。 그러다보면 나 또한 무엇인가 한 구석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때도 올까?

『여보, 밥 안줄꺼요? 무얼 생각하는 거야? 지금이 몇 시라고…』

남편의 짜증섞인 소리에 퍽 일어선 나는 갑자기 바빠진다。 나도 어떻게하면 전공을 살릴 수 있을까하는 궁리는 다시 뒤로 미루어지고 만다。

同門作家 短篇選

조조한 소나기 〈下〉

朴 順 女 〈50년 師大英文科卒〉

그러나 저러나 여하간에 버릴 거 버리고 집안을 정리해 봤는데 아무리 해봐도 달롱네를 면하지 못했다. 게다 승재의 고매한 취미를 입증해 줄 난이 추위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8톤 트럭의 한가운데를 비워서 정성껏 모셔왔는데 도대만 뭐라나 하는 난은 꽃대가 쭈욱 올라와있었는데 얼어서 허리가 활처럼 휘어져 버렸다. 휘어졌을 뿐이 아니고 살짝 데친 나물처럼 새들새들 했다. 그렇게 새들새들해 가지고 꽃내는 진동했다. 왼쪽의 꽃망울 두개가 일을 벌렸을 정도인데도 꽃내가 그렇게 진동하니 아래로 내려오는 꽃망울이 죄다 피면 과연 난의 진수를 알 수 있을 거 같았다.

그러나 난을 살리자면 꽃은 죽여야 한다고 승재는 진단했다. 동상을 입은 팔다리를 잘라서 더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처럼 승재는 가위를 들어 동상을 입은 꽃대를 쌍둥 잘랐다.

「좀 더 두었다 자르지」

동상을 입은 것만도 아까운데 아내는 아까와서, 아까와서 죽을 모양이었다.

「이래야 난을 살린다구」

7만 5천원짜리도 이파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 또 이파리가 넓직한 양난 새끼도 완전히 얼어서 어깨를 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7만 5천원짜리는 새끼를 하나 치면 1만 5천원이라는데 새끼는 치지 않더라도 죽지만 말아다오. 2만원짜리는 한촉에 3천원, 또 저건 5천원… 난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죽지만 말아다오.

서울 본사에 나가기 시작한 승재는 난을 화제로 삼아 보았다. 그랬더니의 외로 반응이 있었다. 결제 성장에 따라서 화초에 대한 관심도 초연한 것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번 봄에 K에 가서 난 캐기를 해볼까요?」

그랬더니 모두 신선한표정으로 찬성을 했다.

「한촉에 3백원도 안되는 자생난이에요.」

그 말에도,

「처음에야 그런게 좋지요. 난이라면 그냥 그윽하게 생각하는 얼굴들이었다.

「그럼 몽땅 출장으로 떼가지구 난캐기를 갈까요?」

「좋지요.」

승재를 환영한다고 술판이 몇번 벌어졌다. 그러자 또 누가 집을 샀다고 집들이가 있었다. 생일초대도 있었다. 승재한테도 집들이를 하라고 다구졌다.

「김승재씨야 말로 새집을 사가지고 서울본사에 왔는데 가만 있어서는 안되지요. 난을 좀 봅시다. 난을.」

「여하간에 난을 좀 봅시다. 난을.」

이 말에도 그럴듯한 것이 있었다. 승재는 집에 돌아와서 새삼스레 집안을 둘러 봤다.

저번에 집들이를 간 집은 집을 장만하느라고 무지 고생을 했던지 집안이 썰렁했다. 가구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가구가 없으니까 크지 않은 집인데도 벌판같아 보였다.

또 생일초대로 간 집은 살림이 들이 잡혀 있었다. 어디를 어떻게 꾸며 놨는지는 알 수 없어도 편안했다. 어디에다 눈을 주어도 우습게 보이는데가 없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온다면…승재는 생각해 보았다. 마루 바닥에 난이 무더기로 늘어져 있고 저쪽구석엔 찌그러진 설합장, 이쪽 한 탁자, 다리가 건들거리는 식탁 모두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내는 다른 집에 다녀와서 새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물건만 엄선해서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살 텐데요.」

그러면서도 헌 물건들을 싸고 돌았다.

「그나저나 집들이를 하라고 아우성인데 어쩌지?」

「집들이는 무슨 집들이, 당신은 왜 우리 집인 거처럼 뻥을 까요?」

「당신은 왜 우리 집이라고 그래?」

「당신 때문이죠. 당신이 나면 가구점을 돌아다녔다. 일요일에는 아내를 앞장세워서 다녔다.

다른 것은 다 무시하더라도 난초화분만은 그럴듯하게 모시고 싶었다. 달롱네에 고매한 것이 공존하면 고매한 것에 고매한것이 더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일 수도 있다. 그러자면 승재로서는 난이 감조되는 길 밖에 없었다.

「장식장을 사자구요」

하고 아내는 말했다. 그러나 눈에 드는 것이 있으면,

「집들이 비용도 없는데…」

하고 아내는 돌아섰다.

그들은 결국 특수연출을 생각해 냈다. 어느 꽃집에서 거기 덩굴고 있는 생난부를 보았을 때 그 생맥상통함지도 몰랐다.

승재는 중고품으로 꽉찬 집에 손님을 맞았다.

그런데 손님들의 얼굴이 좀 얼떨떨한것 같았다. 왜 그런고 하면 상상 밖에 승재네 물건들이 허름했기때문인지도 몰랐다. 왜 이런 물건들을 붙잡고 있을까. 잔뜩 붙잡고 있을까. 그들은 집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했다. 넓습니다, 좁습니다, 시원합니다, 등의 말이 일체 없었다.

난을 보고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말문요, 이게 그 난입니까, 말문요, 보기 좋은데요, 하는 말이 일체 없었다.

난으로 말할것 같으면 승재는 사실 많이 가지고있었다. 보통집에서 이만큼가 꽃대가 쭈욱 올라와 있었다. 이것 보기 그 난입니다. 이게 그 난입니다. 이것 보기 좋은데요.

母校소식

「日省錄」 영인본 12권 발간

정조 10년~11년의 기록

도서관에서는 규장각자료 영인사업의 일환으로 12권째 「日省錄」을 발간하였다.

수록된 내용은 정조10년 12월에서 11년 9월까지의 기록이며, 국배판으로 1천50면이다.

「地域연구센터」 설립된다

5년간 총1백25억 投資

人文·社會분야 사상 최대규모

내년도 상반기중 모교내에 「지역연구센터(Center for Area Study)」 설립이 확실시되고 있어 종합학문으로서의 「지역연구」가 교수 4~5백명이 참여하는 등 학계사상 최대규모의 프로젝트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본부 연구처(부처장 徐正憲교수)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지역연구협의회」(위원장 金榮國부총장)가 국제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와 국제교류증대에 따른 정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정책자문의 필요성에 약 6개월간에걸쳐 마련한 「지역연구사업계획서」를 최근 문교부와 경제기획원등 정부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제1차 5개년기간(1990~1994) 동안 연구동 설립·자료실확충·연구비 등에 총1백2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인문·사회계열에 있어서 전례없는 투자규모이다.

「지역연구」란 일정한 지역(특정국가등)에 대하여 정치·경제학에서부터 사회·인류학등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입장에서접근하고, 그 종합위에 각 지역의 구조·기능·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가리킨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남북한·소련 및 동구권·중국·일본·서유럽지역·동남아 및 오세아니아지역·아프리카등 지역별연구와 정치와법·경제와경영·사회·문화·역사·지리 등 내용별연구를 「行列方式」으로 조합하여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특성상 각 科와 미국학연구소·국제문제연구소 등 모교내 14개의 지역관련 연구소등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진행 전지역·전분야를 종횡으로 뒤따르게 되며, 이 경우 종래의 각 연구소 단위로 진행돼온 연구성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단위 공동연구사업의 場을 새롭게 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투자가 신소재공동연구소, 기초전력공동연구소등 이·공계열에서 벗어나 학문간균형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해외진출의 한계를 느낀 정부·기업측이 학계에 지역연구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있는실정에 비추어 産·學·官 협동은 이제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으며 이같은 면에서 이 계획은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구나 모교이외의 他校학과 및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도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만간 전국적 규모로 확장이 가능케 된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전체예산 1백25억중 모교자체예산은 45억원(연구동건립 및 자료실확충비)이며 나머지 80억원(연구비)은 정부지원금(40억원)과 민간단체기부금(4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원은 전임연구교수, 특별연구원 외에 프로젝트관련 學科 및 연구소의 교수와 대학원생 등으로구성된다. 오는 91년까지연구동이 완공되면 20여개의 연구소가 입주, 94년까지 연간 15억~20억원규모의 연구비를 집중투자함으로써 「지역연구」가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연구동은 각 科 및 연구소 교수는 물론 대학원생에게 연구소들 제공, 공간난을 겪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에게쾌적한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부수효과도 내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지적되고 있는 한가지 문제점은 오는 7월 확정되는정부예산안에 본사업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徐正憲 연구부처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보아도 그명분이 충분하며 또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니만큼 정부측의 지원을 낙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대학행정본부 연구처는 이 사업과 관련 철학사상연구소·경영정보연구소 등 5개연구소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趙完圭총장 國際회의 참석

LA지역 동창회 任員도 만나

◇趙총장

모교 趙完圭 총장은 지난 5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태평양지역 주요대학 총장회의」에 참석했다. 태평양 시대의 부상에 따른 이지역대학의 역할 및 대학간 협력관계를 중점 토의한 이번 회의에서 趙完圭 총장은 「태평양시대의 추세와 대학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趙東成 기획부실장이수행한 이번 국외여행 중, 趙총장은 또 LA지역동창회 모임에도 참석, 동창회 임원 및 회원들과 환담한 후 모교 발전기금 조성등에 대해 협의했다.

올 期成會 予算공개

진전된 民主化 조치 평가

「학생들의 학사행정참여 불가」라는 방침에 막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성회예산각목명세서가학교당국과 학생들의 협의에 의해 공개됨에 따라 학사행정의 민주화란 측면에서 발전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88학년도기성회세입세출 결산보고서도 공개돼, 학생들이 학교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소비조합 예·결산서등관련 자료의 공개에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기성회예산각목명세서는 지난해 「6·24 총장실점거」사건 당시 학생들이 본부에서 가지고 나온 기성회관련서류와 같은 것으로, 당시 그 내용이 대자보로 전재돼 학내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기성회예산은 언제라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다」며 「학생들이 낸 돈으로 구성되는 기성회비이니만큼 앞으로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목명세서를 통해 이번에 공개된 기성회예산은 작년보다 47억여원증액된 2백35억여원으로 모교 15개 단과대학과 4개 대학원, 본부의 6개 局·處등 40개기관에 배분케 돼있다.

教員증원 研究費증액 건의

교수협、文敎部에 서한 전달

교수협의회(회장 田溶元 교수·자원공학)는지난 5월6일 교육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趙完圭총장과 鄭元植문교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모두 11가지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문교부연구보조비를 90년에는 1백% 인상 △모교대학원생에게 KAIST수준의 학위논문작성보조비지급 △현재 기성회비로 지출되는 각종시설비 및 수용비를 국고로, 장학금도 국고 또는 장학기관이 부담 △교수대 대학생비율은 95년까지 1대 15로 감축, 매년 80~90명 교수정원 증원 △연간 일정액(교수 1인당 약 3백만원)의 교수연구비를 대학기본예산으로 편성, 지원 △교수의 연구·자료수집·학생실습지도·실험기기의 효율적 이용 위해 교수 1인당 조교 1명 배치, 기기운용을 위한 지원 △대학원생 병역제도 전국적 일원화, 병역법 개정까지 현행 석사장교제도 존속 △도서관 시설의현대화 및 도서구입예산대폭 증액 △교수安息年制(연구연가제도) 조기 실시 △교수재임용제도 폐지등이다.

또, 학교당국에는 △도서관 운영제도 재검토 △교수식당 운영제도 개선 △공무해외여행절차 합리화 △수원캠퍼스 서울직통전화 가설 △교수의국내학회참가 여비 연간 2회 지급 △교수 주당책임강의 시간을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감축할 것 등을 건의했다.

冠岳舍 축제 열려

体育대회·入房式등 행사다채

제22회 관악사축제가 지난 5월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신입생들에게 대학문화를 소개하며, 향락·퇴폐적인 문화를 일소하고민족·민중적인 관악사문화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11일 체육대회를 시발로 바둑·장기대회, 12일 마라톤-순환도로·사생한마당(동별 장기자랑·캠프파이어), 13일 개막고사·「관악사 한소리」공연·합께부르기·외부인 초청공연, 14일 각동별 입방식·사물놀이공연·시국강연회·메아리공연등이 있었다.

齒大 學長에

金明國교수연임

모교는 지난 5월6일 임기 만료된 金明國치대학장을 연임 발령했다. 연임된 金학장은 58년 모교치대를 졸업한후 모교대학원에서 구강해부및 병리학을 전공, 61년부터 모교 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특히 기초의학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해왔다.

◇金明國학장

총女學生會 재건

회장에 서현주양

총여학생회가 3년만에 재건되어 재건1대 회장에 서현주양(서어서문·4)이 당선됐다.

총여학생회는 지난 84년 설립되었다가 86년해체되어 총학생회 산하의 여학생부로 흡수됐었다.